

제2장 설화

제1절 전설

1. 남구지역

● 어룡사(魚龍沙) 예언

지금 포항제철소가 자리 잡고 있는 일대를 ‘어룡사’, ‘어룡불’ 또는 ‘어렁이불’이라고 불렀다.

옛 사람들은 호미곶이 영일만을 감싸고 동해바다로 길게 돌출한 것을 보고 마치 용이 등천하는 형국이라 하여 용미등(龍尾嶺)이라 부르고, 흥해읍 용덕리의 용덕곶이 동남으로 돌출한 것을 어약승천(魚躍勝天)의 형국으로 보았다. 양곶(兩串)의 형상을 풍수학적으로 어룡상투(魚龍相鬪)의 형국으로 보았다. 그래서 영일만의 중심지대인 이곳을 어룡사라고 부르는 게 된 것이다.

또 이 ‘어룡사’는 광의(廣意)와 협의(狹意)의 어룡사로 나누어 부르기도 했다. 넓은 의미에서 어룡사는 동해면 약전동에서 형산강을 지나 포항시 두호동에 이르는 넓은 백사장을 총칭하는 것이었고, 좁은 의미의 어룡사는 형산강 하류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 즉 현재 포항제철소가 자리 잡은 지대와 송도해수욕장 일대를 말하였다.

영일만 안쪽 반원을 이루는 어룡사는 황금빛 모래벌판이었다고 한다. 동지선달의 셋바람이 몰아치면 모래가 언덕을 이루는 곳이었다. 바람찬 모래땅이었기 때문에 갈매기나 노닐 뿐 사람들의 왕래가 크게 없었다.

조선의 유명한 지상학자였던 이성지가 우연히 모래벌판을 둘러보고는 범상한 곳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 서편의 운제산이 십 리만 멀리 있어도 수십만의 사람이 살았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이만한 위치와 지형이라도 좀 늦어지기는 하겠으나 많은 사람이 모여 살 거라고 예언했다. 같이 길을 나섰던 이 지방의 선비들은 풀 한 포기 없는 이 갯가에 어찌 수십만의 사람이 살 수가 있겠는가 하며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자. 이성지는 혼잣말처럼 ‘죽생어룡사 가활만인지 서기동천래 회망무사장’(竹生魚龍沙 可活萬人地 西器東天來 回望無沙場)라는 시를 뇌었다고 한다.

그 뜻을 새겨 보면 「竹生魚龍沙」 어룡사에 대나무가 나면 ‘可活萬人地’ 가히 수만이 살 곳이니라. ‘西器東天來’ 서쪽 그릇이 동쪽 하늘에 오면, ‘回望無沙場’ 돌이켜 보니 모래밭이 없어졌더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후 이 지방에는 이성지의 예언이 널리 퍼졌다고 한다. 이 예언은 수백 년이 지나도 아무런 징조가 없더니 1960년대 어룡사는 포항제철 부지로 선정되어 대나무 같은 굴뚝이 치솟아 올라가고, 수십만의 사람이 모여 살게 되었다.

● 효불효교(孝不孝橋)

칠성강은 형산강의 지류로 효자(옛 주진나루)에서 동북방향으로 흘러서 오늘날 남부 초등학교, 포항역, 죽도시장, 동빈내항을 지나던 강으로 포항강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 강 서쪽 언덕에 한 과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과부는 밤늦게 아들이 잠든 틈을 타서 외출을 하기 시작하더니, 점차 그 횟수가 잦아졌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아들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동짓달 어느 날, 몰래 어머니의 뒤를 밟아보았다. 어머니는 칠성강에 이르러 옷을 훌훌 벗더니 강을 건너갔다. 강을 건너서 다시 옷을 입고는 섬안들길을 내닫더니 상도동 어느 흠아비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흠아비와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을 목격한 아들은 몹시 당황하였다. 죽은 아버지를 생각하니 어머니가 밋고 원망스러웠지만 한편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그 애달픔에 가슴이 아렸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통밤을 새운 아들은 엄동설한에 옷을 벗고 강을 건너는 어머니를 위해 징검다리를 놓기로 했다. 아무도 몰래 크고 넓적한 바위덩이 일곱을 옮겨다가 다리를 놓았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 가지 않는 법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연일현감에게 알려서 효, 불효를 가리게 하였다. 현감은 ‘동온하정(冬溫夏凜)’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해드리듯이 죽은 아버지는 죽은 대로, 산 어미는 산 자의 소망대로 해주는 게 효도라며 아들에게 효자상을 내렸다고 한다. 그 뒤 어미 편에 선 사람들은 이 강을 효자교이라 하고, 죽은 아버지 편에 선 사람들은 불효교라고 불렀으며, 돌덩이 일곱으로 놓은 징검다리를 두르는 칠성교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강 이름은 칠성강으로 굳어졌으나 다리는 효자교이면서 불효교라 하여 효불효교(孝不孝橋)가 되었다고 한다.

● 금수(禽獸)의 보(報恩)

형산강 주진나루에 한 사공 노인이 살고 있었다. 어느 해에 홍수가 나자. 상류에서 사람을 비롯하여 가축과 곡물들이 많이 떠내려 왔다고 한다. 사공은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띄워 사람과 가축들을 구해냈다. 저녁 무렵, 기진맥진해진 사공은 배를 강가로 저어가고 있는데 노루 한 마리가 허우적대며 떠나려 오고 있었다. 사공은 얼른 뱃전으로 끌어올렸다. 이어 큰 뱀도 건져 올렸다. 강가로 나온 노인은 노루와 뱀을 놓아 주었다. 돌아서려는데 멀리서 열대여섯 되어 보이는 아이가 떠나려 오는 게 보였다. 사공은 다시 배를 띄우고 죽을힘을 다해 아이를 구하여 집으로 옮겨서 간호를 하였더니 간신히 의식이 돌아왔다.

의식이 돌아온 아이를 데리고 물어보니 오갈 데 없는 고아였다. 그래서 외롭던 사공은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 함께 살면서 글도 가르치고, 나루일도 시키며 살게 되었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 하루는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서 킁킁대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어느 해 사공이 구해준 바로 그 노루였다. 노인이 마당으로 나오자 노루는 옷소매를 끌어당기며 어디로 가자는 듯 자꾸만 조르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공은 노루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어느 곳에 이르러 노루가 가리키는 곳을 파보았다. 조그만 상자가 하나 나왔는데 열어보니 금은보화가 가득하였다. 사공은 이를 팔아서 논밭을 장만하여 부자가 되었다.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되자, 양자가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다. 글공부와 사공 일은 뒷전이고 밤낮없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술타령을 하고 미색을 탐하는 한편 도박을 일삼았다. 이를 말려 보았지만 반성은커녕 오히려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다. 참다못한 사공은 파양자 선언을 하게 되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양자는 연일현 관아에 찾아가서 양부가 사람을 죽이고 그 재물을 약탈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거짓 고발을 하였다. 연일 현감은 사공을 잡아다가 하옥시켜 버렸다. 양부를 감옥에 넣은 후에도 양자는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였다. 사공은 살인강도라는 엄청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억울함을 하소연해 보았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나머지 죄까지 추궁한다며 혹독한 고문이 계속되었다.

고통 속에서 수십 일을 보내던 어느 날 밤이었다. 옥사에 느닷없이 커다란 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사공을 덩석 물고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고문으로 기진맥진해 있던 사공은 놀라고 아팠지만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혼자 상처만 부둥켜안고 있었다. 뱀독이 퍼지면서 의식이 가물가물해져 갔다. 사공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누워 있었다. 아, 그때 사라진 줄 알았던 그 뱀이 풀잎 하나를 물고 다시 와서는 상처 위에다 붙여 주는 것이었다. 그제야 자세히 보니 흥수 때 살려준 바로 그 뱀이었다. 그 약초를 붙이고 나자 차츰 의식이 돌아왔다. 참 신기한 일이었다. 사공은 참 괴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잠을 청하였다. 그때 밖에서 옥졸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니 조금 전에 현감 부인이 뱀에게 물려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여러 가지 약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 말을 듣던 사공은 화들짝 일어나 앉으며 옥졸들에게 소리쳤다. 자신이 뱀독을 치료하는 묘법을 알고 있으니 현감께 전해달라고 하였다. 이 말을 전해들은 현감은 사공을 집으로 불렀다. 사공은 뱀이 주고 간 그 약초를 부인의 상처에 붙여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가던 부인이 숨을 크게 내쉬며 일어났다. 거짓말 같았다. 현감은 크게 고마워하면서 사공에게 그 비법을 물었다. 사공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현감은 짐승보다 못한 양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사공은 풀어 주었다고 한다.

● 용(龍)이 승천(昇天)한 구룡포

구룡포읍 병포리 해안 절벽에 기암용문(奇巖龍門)이 있는데 이곳을 구룡승천지(九龍昇天之池), 또는 구룡소(九龍沼)라 하였다.

신라 진흥왕때 관리가 마을을 순찰하던 중 용주리(龍珠里) (현 구룡포 6리 옛 지명은 사라리)를 지날 때 별안간 천둥과 폭풍우가 휘몰아치더니 그 비바람을 뚫고 용 열마리가 승천하다가 불행하게도 그만 한 마리가 떨어져 죽고 말았다고 한다. 이때부터 용 아홉 마리가 승천하였다고 하여 구룡포라고 불렀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신라 때 형산강 물길을 만들기 위하여 형제산 중턱이 잘라져 날아가서 장기반도(호미곶)를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용이 쳐서 만든 땅이라 하여 구룡포라 불렀다고도 한다.

● 불썌(컨) 바위

구룡포읍 후동리 음달마 뒷산에는 ‘불썌바위’ 라는 큰 바위가 있다. 먼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바위 밑에 불을 썌(켜)의 방언) 놓고 기도를 하였다고 ‘불썌바위’ 라 불렀다. 그 뒤에 한자음을 빌려와 불선암(佛仙岩)이라고 바뀐 적도 있었다. 원효대사와 동학교주 최제우가 이곳에서 수도했다는 얘기가 전해오며,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만큼 기도처로 잘 알려져 있다.

바위 밑에 불을 썌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바위 근처의 나무를 베면 반드시 건너편 산에서 산불이 난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불썌바위 근처의 나무를 베는 일이 없다고 한다.

● 형제산(兄弟山)의 단맥(斷脈)

형제산은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서 포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형산강 남쪽이 형산이고 북쪽이 제산이다. 형산은 신라 때는 북형산성(北兄山城)으

로 불렸으며 산꼭대기에는 왕룡사라는 절이 있는데 김부(敬順王)대왕과 김충 태자의 목상을 모셔두고 있다. 형산강은 예부터 두 산 사이를 지나 포항을 적시고 동해로 흘러들었다.

옛날, 형제산은 한 덩어리였다고 한다. 경주의 남천, 알천이 흘러와서 안강의 칠평천, 기계천을 만나고는 강줄기가 형제산에 갇히는 바람에 안강 일대는 호수를 형성하였다고 한다. 비가 많이 내리기라도 하면 물은 역류하여 경주까지 그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형산강의 치수 문제는 신라의 숙원사업이었다. 경순왕 김부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후백제와 고려(태봉)이 일어나 서로 각축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는 사방에서 도적떼가 날뛰는 바람에 나라가 몹시 어지러웠다. 그야말로 신라는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답답해진 경순왕은 사관에게 신라의 장래에 관한 점을 보도록 하였다. 신라의 산천과 지세를 살펴 본 사관은 장차 신라의 왕위를 찬탈할 역적은 북쪽의 궁예와 서쪽의 견훤 세력이 아니라 동쪽 임정현(臨汀縣)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이를 막기 위해서 형산포의 산을 끊어 안강 호수의 물을 어룡사(漁龍沙), 즉 영일만으로 흘러 보내면 임정현 땅의 지정왕기(地情王氣)가 제압되어 역적이 출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경순왕은 태자 김충(金忠)과 의논하여 백일간의 기도를 올리기로 하였다. 경순왕은 목침(木枕)으로 삼층집을 집을 짓고 옥황상제와 천지신명과 신라왕실의 조종(祖宗)들에게 나라의 안녕을 빌었다.

형제산을 찾은 태자 김충은 형제산의 단절을 천지신명께 기도하였다. 간절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켰다. 하늘은 태자를 큰 뱀으로 만들어 놓고 백일 안에 사람들이 용으로 불려 쥐야만 용이 될 수가 있으며 용이 된 뒤에 그 꼬리로 형제산을 치도록 하였다. 천지조화 속에도 민심이 더해져야 힘이 발현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다.

뱀이 된 김충 태자는 길가에 누워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은데도 용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큰 뱀을 보고는 두려워서 달아나기만 하였다. 백일 기한에 불과 하루밖에 남지 않은 날이었다. 크게 낙심하고 있는데 마침 한 노인이 손자를 업고 지나다가 큰 뱀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저런 큰 뱀도 이 세상에 있는가?” 하고 말했다. 그때 업혀 있던 손자가 “할머니! 저 것은 뱀이 아니고 용이에요.” 라고 했다. 태자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리였다.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거대한 용은 하늘로 날아오르며 힘껏 꼬리를 휘저어 형제산을 내리쳤다. 형제산이 갈라졌다. 갇혔던 강물은 그 사이를 빠져 나가기 시작했다. 깊이 잠겨있던 강바닥이 천천히 드러나더니 넓은 들이 되었다.

경순왕은 뱀을 용으로 불러 준 아이에게 호수에 물이 빠진 후 생긴 땅을 상으로 주고, 그 들의 이름을 아이의 이름을 따라 유금들이라고 불렀다. 현재 강동면 유금들이

바로 그 때 생겨난 땅이다.

형산 산정의 왕룡사라는 절에는 아직도 김부 대왕과 김충 태자의 목상을 세워놓고 그 유덕을 추모하고 있다.

● 최문장(崔文章)

현 연일읍 자명1리는 40여 가구의 해주 최씨들이 씨족을 이루어 살고 있는 우리 지방 해주최씨의 대표적 집성촌이다. 조선 숙종때에 흥해군 남면 자방리(自芳里)(현 연일읍 자명1리)에 최 문장이라는 착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학문과 덕행이 높아 이름보다 ‘최 문장’으로 통하였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동(神童)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최 문장은 청운의 뜻을 품고 수차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어찌된 이유인지 낙방만 거듭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도 최 문장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학문이 부족한 것이라 생각하고 학문 연마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 해 과거가 또 있다는 방문(榜文)이 나붙었다. 최 문장은 다시 응시기로 하고 등과의 길에 오르기 전 향리의 어느 분에게 인사를 갔는데, 그분은 한 가지 조언을 해 주었다.

서울에 당도한 즉시 이번 과거의 시관(試官)이 누구인지 알아본 후 시관택을 방문하여 인사해 두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최 문장은 서울에 당도한 즉시 시관이 누구인지 탐문하니 당대의 세도가요 권신(權臣)인 민 판서였다. 최 문장은 아침 일찍 그택을 방문하였다.

최 문장을 접견한 민판서는 최 문장의 풍채가 보잘것없고 용모도 추잡하여 양반의 반열에는 도저히 배열시킬 수 없는 인물로 보았다. 이같이 보잘것없이 생긴 자가 감히 과거를 보러 온다는 것이 가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 판서는 이 자로 하여금 다시는 과거를 보겠다는 생각조차 못하도록 할 작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누구 문하에서 공부하였는가?”

“영남거유 낙제 선생에게 사사하였습니다.”

“그대로부터 3대 이내의 어른들 가운데 벼슬한 일이 있는가?”

“벼슬은 없어도 나라의 은혜를 입고 그 덕으로 향반반열에 시립하는 가문의 자손입니다.”

“책을 무엇을 읽었는가?”

“사서삼경은 물론 천문, 지리, 주역, 음양학, 추리학, 이수학 등 달통하지 않는 학문은 없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생각하니 촌락의 일개 서생이 유학, 잡학을 막론하고 통하지 않는 학문이 없다고 자랑하는 것이 하도 건방져 보여서 혼내줄 양으로

“그럼, 내가 운자를 낼 터이니 징을 한번 두드려 그 소리가 멈추기 전에 칠언절구 한 수를 지어낼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 이에 최 문장은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징소리가 멈추기 전에 한 수를 지을 수 있으니 속기사와 지필묵(종이와 붓과 먹)을 준비하여 달라고 대답하였다.

민판서는 징을 땅 올리면서 ‘아이 아(兒)’를 불렀다. 이에 최 문장은 “嘻乎天地間男兒(슬프다, 하늘과 땅 사이의 대장부들아)”하고 대답하였다. 이어 민 판서는 ‘누구 수(誰)’라고 운자를 불렀다. 최 문장은 “知我平生者有誰(저의 평생 운명을 아는 자 누구 이냐)”했다. 또 ‘자취 적(跡)’하고 부르니 최 문장은 “薪水三千里浪跡(부평초처럼 삼천 리를 떠도는 손인데)”하였으며, ‘말씀 사(詞)’ 하고 부르니 “琴書四十年今詞(40년간 닦은 공부 오늘 이 글에 있구나)”했다. 민 판서는 이어 ‘원할 원(願)’을 냈다. 이에 “靑雲難力致幸願(뜻은 힘으로 이루기 어려우니 민판서의 마음에 달렸구나)” 하였으며, 이어 나온 ‘슬플 비(悲)’에는 “白髮惟公白頭悲(백발에 오직 공도이나 벼슬 한자리 못함이 슬프도다)” 했다. ‘앉을 좌(坐)’에는 “驚罷還鄉神起坐(고향에 돌아가는 꿈에 깨어나 앉으니)”하였으며 ‘가지 지(枝)’에는 “三更越鳥聲南枝(삼경에 넘어온 새소리가 남녘가지에 들리는구나)”라고 읊었다.

이윽고 징소리가 그쳤다. 56자의 시를 다 지은 것이다. 민 판서는 옆의 속기사가 받아 적어 주는 시를 받아 들고 검토하니 실로 명문이었다. 민 판서는 최 문장과 최 문장이 쓴 시를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징소리가 한번 울릴 때마다 한 수씩 지을 수 있다면 그 포부와 경륜과 학문은 가히 알고도 남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에게 천거하여 기용하고 싶기는 하였으나 풍채가 보잘것없고 용모가 추하여 도저히 조정 반열에 세울 수 없으므로 다음 기회에 추천할 것을 약속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고향에 돌아온 최 문장은 글공부를 계속하면서 기다리는데, 어느 날 민 판서가 사 람을 보내 왔다. 청나라에서 국서가 왔는데, 그 국서에 잘 해득할 수 없는 구절이 있으므로 해득할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 임금에게 최 문장을 추천했으니 급히 상경하 라는 것이었다. 드디어 출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기뻐한 최 문장은 불원천리하고 서울 가는 길에 올랐다.

민 판서의 안내로 대궐에 들어가니 왕이 청나라에서 온 국서를 신하를 시켜 보이며 ‘연식고초(薦食枯草)’의 뜻을 해석해 보라고 하였다. 최 문장은 도도한 능변으로 그 뜻을 즉석에서 해석하여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기뻐하며 최 문장을 가상히 여겨 소원이 무엇이나 물었다. 이에 최 문장은 경상도 감사를 제수하여 주시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최 문장의 용모와 풍채가 하도 보잘것없어 알겠다고 말하고 고향에 돌아가 기다리고 있으면 추후에 부르겠다고 말하며 상을 주

어 돌려보냈다. 고향에 돌아온 최 문장은 서울 소식만 기다리다가 그만 지쳐 죽었는데 임종 때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한다.

“사람은 신언서판(身言書判)이 조화를 이루어야 출세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 자손들의 혼사 문제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명판관 어득호 현감

조선 중엽에 어득호(魚得湖)라는 연일현감이 있었다. 그는 성품이 호탕하고 인자하였으며, 덕행이 많아 항상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고을을 다스렸다고 한다. 또 공평무사한 재판으로 백성들로부터 명판관(名判官)이라는 소문이 자자하여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삭풍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눈보라 치는 추운 어느 날, 연일현 성하(지금의 대송면 남성리)에, 옹기장수 한 사람이 옹기를 지고 나타나 옹기 사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녔다. 들판을 가로질러 성내의 마을로 가던 그는 옹기 집을 내려 지게짜지에 받쳐 놓고 길가에서 소변을 보았다. 그때 홀연히 하늬바람이 세차게 불어 옹기 집이 넘어졌고, 지게 위에 있던 옹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보잘것없는 옹기행상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리면서 아흔이 된 늙은 어머니까지 봉양해 온 그였다. 그런데 졸지에 옹기가 다 깨어져 버렸으니 앞길이 암담하고 하늬바람에 대한 원망과 설움에 북받쳐 하늘을 우러르며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때 마침 정선달이라는 사람이 지나다가 산산조각이 난 옹기 앞에서 통곡하는 그를 바라보고 우는 이유를 물었다. 옹기장수는 옹기가 깨어진 연유를 말하고 아흔이 넘은 노모와 처자식이 꿈쩍없이 굶어죽게 되었다고 울먹였다.

전후 사정을 듣고 난 정 선달은 옹기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상을 받아 낼 도리가 있으니 생각이 있으면 따라와 보라며 앞장서서 걸어가는 것이었다. 옹기장수는 귀가 번쩍 띄어 빈 지게를 지고 뒤를 따라갔다. 정 선달은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늬바람을 고소하는 소장을 써주며 이 고을의 어득호 현감에게 직소(直訴)하라 했다.

옹기장수는 소장을 고맙게 받아 쥐고 연일현 동헌 마당에 들어가 사또를 뵈옵자고 청하였다. 어 현감은 동헌에 나와 앉아 “어디 사는 백성인데 무슨 까닭으로 나를 만나자고 하는가?”하고 물었다. 옹기장수는 현감에게 소장을 바치는 한편, 자초지종을 울면서 고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현감은 소장을 한번 훑어보고 어이가 없는지 옹기장수와 소장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히죽 웃고 나서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가슴을 죄며 사또의 분부만 기다리는 옹기장수에게 어 현감이 말했다.

“부모에 대한 효성이 놀랍구나. 그럼에도 옹기를 깨서 네 장사를 망쳐버린 하늬바

람이란 놈이 고약한 놈이다. 내 그 놈을 잡아다가 옹기 값을 변상케 할 터이니 기다리고 있거라”

부드러운 목소리로 옹기장수를 달래던 어 현감은 아전들과 군노사령(軍奴司令)들을 불렀다. 사령들이 대령하니, 어사또는 하늬바람이란 놈을 즉각 포박하여 대령하라고 명하였다.

명령을 받은 군노사령들은 어리둥절하여 사또가 도대체 무슨 명령을 내리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머리를 조아렸다.

“이놈들! 나라의 녹을 먹고 이 관아에서 일한 지 이십 년이 넘는 놈들이 그다지도 무식하던 말인가. 하늬바람을 잡아오라는 말이렸다.”

하고는 빙그레 웃었다. 여전히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또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니 어 현감이 크게 웃으면서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형산강의 부조시장(扶助市場)에 가서 정박하고 있는 강원도, 원산, 청진 방면에서 온 배의 사공과 선주, 또 부산, 동래, 목포, 군산 방면에서 온 배의 사공과 선주를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말이렸다.”

군노사령들은 현감의 명령이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지만 곧장 달려가 형산강의 부조시장과 포항어귀에 머물고 있는 선박을 뒤져 다른 지방에서 온 선주와 사공을 모조리 잡아다가 동헌마당에 시립시켰다.

어 현감은 영문도 모른 채 잡혀와 마당에 집결한 선주와 사공들을 향하여

“형산강과 포항어귀에 머물고 있는 선주와 사공들은 잘 들어라. 이 고을 관내에 너희들이 들어와 머문지가 벌써 수십 일이 경과되어 배에 신고온 상품은 거의 다 매매 거래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어찌하여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직껏 머물고 있느냐. 그 이유를 이실직고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선주와 사공들이 대답하기를

“부산, 동래 방면이나 강원도, 함경도 방면으로 가려고 하는 배는 모두 하늬바람이 잘 불어주어야 하는데 하늬바람이 불지 않아 뱃길이 나쁘므로 아직 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루 바삐 돌아가고 싶어 하늬바람이 불어주기를 천지신명에게 빌기도 하였사오니, 하늬바람이 불어주지 않아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어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늬바람만 불어주면 빠른 시일내에 떠나겠사오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였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어득호 현감은

“그래, 네 이놈들! 너희들이 고향에 빨리 돌아가고자 천지신명에게 하늬바람이 불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제사도 지내고 했던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하늬바람이 갑작스럽게 불어 이 성중에서 옹기장수 한 사람이 옹기 집을 넘어뜨려 옹기가 모두

박살이 나서 오십 냥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러니 하늬바람을 부른 너희들의 죄인즉, 배 한 척당 돈 두 냥씩을 모아 옹기장수의 손해를 변상하도록 해라.”

이 같은 판결에 선주들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현감의 판결에 감히 불복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돈을 내놓았다. 어 현감 덕분에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 옹기장수는 만면에 희색을 감추지 못하고 동헌 마당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 사또 명사또, 우리 사또 명판관. 우리 사또 만만세”라고 외쳤다고 한다.

● 조박골의 부자

연일읍 인주리 조박골(照璞谷)에 한 부자가 살았다. 그는 길손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지방이 닳을 만큼 손님이 많이 드나들었다. 그러나 직접 손님을 접대해야 하는 며느리를 입장에서는 무척 귀찮은 일이었다.

하루는 한 스님이 지나가기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물어보았다. 스님이 말하기를 집 앞에 있는 큰 바위를 굴러 버리라고 했다. 스님이 시키는 대로 바위를 굴러버리고 나니까 바위 밑에 살고 있던 비둘기 두 마리가 나와서 가난한 외딴 집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 후 어찌된 영문인지 부잣집에는 우환이 겹치더니 점점 살림이 기울어지고, 비둘기가 날아가 앓은 가난한 집은 살림이 점점 불어나서 부자가 되었다 고 한다.

그 때 부잣집에서 굴러버린 바위는 조박지(현재의 적계못)에 잠겨있으며, 못물이 졸면 그 꼭지가 보인다고 한다.

● 물고기로 내기하던 오어사(吾魚寺)

오천읍 향사리 운제산(雲梯山) 동남쪽 기슭에 신라 제26대 진평왕 때 창건한 오어사가 있다.

운제산은 원효, 혜공 두 스님이 오어사에서 수도할 때 계곡을 사이에 두고 구름사다리로 서로 오가고 했다 하여 붙인 이름이라고도 하고, 신라 제2대 남해왕의 비, 운제부인(雲梯夫人)의 성모단(聖母壇)이 있어서 붙인 이름이라고도 한다.

오어사는 원래 향사사라 칭하였는데, 항하(갠지스강)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러다가 원효, 혜공스님이 계곡에 뛰노는 고기를 잡아먹은 후에 그 고기를 다시 살려내는 내기를 하였다고 한다. 이에 물고기를 잡아먹은 다음 맑은 물에 토해내니 두 마리의 고기가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 움직였다. 이 때 두 스님은 힘이 센 놈을 서로 나의 고기(吾魚)라고 가리켰다. 이런 일이 있는 후로 향사사를 오어사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 오어사의 세 보물

오천읍 향사리의 오어사에는 원효대사가 사용했다는 세 가지 보물이 전해지고 있다. 숟가락과 장검, 대관이 그것인데 원효대사가 왕명에 의하여 경주로 떠날 때 향사사에 남은 승려들에게 사용하던 이 세 가지 물건을 주면서 보존하면 절이 영속하리라고 일렀다고 한다. 그것이 현재까지 보관되어 오고 있는데 숟가락은 손잡이가 부러지고, 장검은 해방 후에 도난당하였으며, 대관 역시 보관을 소홀히 하여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하게 되었다.

● 정습명의 묘

대송면 남성리에는 영일 정씨(迎日鄭氏)시조인 정습명을 제향(祭享)하는 남성재(南城齋)와 신도비가 읍성 터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연일현청이 있던 곳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로 부임하는 현감마다 원인도 모르게 죽는 것이었다. 아무도 현감으로 부임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이 소문을 들은 답력이 좋은 한 선비가 자청하여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부임 첫날, 두려움 중에 밤을 새우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한 노인이 나타나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내가 누운 자리에 무엄하게 현청을 지었으니 빨리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감이 영겁결에 대답하였다.

“정확한 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알려주시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일찍 까치 한 마리 날아와서 맨처음 앉는 자리가 그 자리니라.”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잠이 쏟아졌다. 까치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까치는 벌써 날아온 후였다. 정확한 위치를 알 길이 없었다. 현감은 마을의 촌로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현청 자리가 정습명의 묘역임을 알게 되었다. 현감은 서둘러 현청을 고읍리로 옮겼다고 한다.

● 영일만의 형성

옛날 왜국에 힘센 역사(力士)한 사람이 있었다. 이 역사는 일본 전국을 두루 다니면서 힘겨루기를 일삼았다. 힘이 세다는 일본의 모든 장수를 굴복시킨 후, 조선으로 건너왔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강한 자가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그 곳으로 달려가 힘을 겨루어 역시 모두 물리쳤다.

어느 날, 영일 운제산 대각봉에 다다르니 동해가 활짝 열리고 수평선 너머에 고국 일본이 보일 것만 같았다. 문득 고향과 부모 형제 생각에 젖어 있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한 역사가 버티고 있었다. 키는 하늘을 찌를 듯하

고 몸은 태산과 같았으며, 눈은 혜성같이 빛났고, 팔다리는 동철의 갑주를 둘러놓은 것 같았다.

이 역사는 벼락같은 소리로

“네가 일본에서 건너왔다는 역사인가?”

“그렇다, 너는 누구냐?”

“요사이 이 나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힘을 과시하는 왜인이 있다더니 바로 너구나. 나는 조선의 창해역사다. 너를 찾아 수십 일을 헤매다가 오늘 여기서 만나게 되었구나.”

창해역사와 일본역사는 서로 어울려 던지고 치고 박고 싸우니 운제산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고 바람과 먼지는 천지를 뒤덮었다. 하늘을 날고 땅을 치며 싸우다가 일본역사가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는데, 그 곳이 그만 움푹 꺼지니 이곳으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호수가 되었다. 이 호수가 지금의 영일만이 되었다고 한다.

일본역사는 창해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군신(君臣)의 예를 취하여, 창해역사는 임금 이 되고 일본역사는 신하가 되었다 한다. 운제산 정상부에는 창해역사의 전설이 담긴 대왕암(大王岩)이 있다. 아들이 없는 부부는 이 바위에 기도하면 영험이 있어 요즈음도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 한다.

● 선녀가 내려와서 앉았던 하선태(下仙臺)

동해면 입암리와 마산리 경계 지점인 황옥포(黃玉浦), 속칭 한끼매에는 작은 바위섬이 있다. 이 바위를 선녀가 내려와서 놀았다고 하여 하선태라 하는데, 주민들은 하이트돌이라고도 부른다.

옛날 동해의 용왕이 매년 칠석날 선녀들을 이곳에 초청하여 춤과 노래를 즐기곤 하였다. 용왕은 그 선녀들 중에서 얼굴이 빼어나고, 마음씨 착한 한 선녀에게 마음이 끌리어 왕비로 삼고 싶어 했다. 그러나 옥황상제가 허락하지 않았다.

용왕은 옥황상제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바다를 고요하게 하고, 태풍을 없애주는 등, 인간을 위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 용왕의 지극한 정성에 감복한 옥황상제는 선녀와의 혼인을 허락했다.

동해의 용왕과 선녀는 자주 이곳으로 내려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 빛이 다시 돌아왔다는 희날재

동해면 약전리와 상정리 사이에 희날재라는 작은 고개가 있다.

신라 어느 왕이 이곳을 돌아보다가 봉산현(장기현의 옛 이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고 밤과 같이 캄캄해졌다고 한다. 놀란 왕이 일관(日官)을 불러 그 이

유를 물어 보았다. 일관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몸으로 경솔하게 다니면서 오랫동안 궁을 비워 두었기 때문에 하늘이 크게 노하여 빛을 거두어 간 거라고 했다. 왕은 크게 뉘우치고 환궁을 서둘게 되었다. 어둠 속으로 막 고개를 넘자 태양이 다시 빛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밝은 날이 되었다는 뜻의 흰날재, 희날재, 히나리재 등으로 불렀다고 한다.

● 현내()들의 독산(獨山)

장기면 현내들 한 가운데에는 홀로 솟아난 산이 하나 있다. 고산(孤山) 또는 고암산(孤岩山)이라고도 하나 사람들은 독산(獨山)이라고 많이 부른다.

신라때 영천에는 마고할멈이 한 분 있었는데 비바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축지법으로 세상을 마음 먹은 대로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어느 해 장기 지역에는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여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 참상을 본 마고할멈은 해마다 장기에 불어오는 태풍도 막고, 해일로부터도 현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천에 있는 산 하나를 둘러메고 와서 장기천 하구에 두었다고 한다.

그 후 영천에서는 마고할멈이 가지고 간 영천 산이라 하여 장기현감에게 해마다 산세(山勢)를 받아갔다 한다.

그런데 어느 해 장기현에 모진 흉년이 들어 재정의 궁핍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영천 세리가 산세를 받으러 왔다. 장기현감은 이를 거부하고 세리를 돌려보낼 묘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만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속(吏屬) 소사(小使)가 현감을 찾아왔다.

“영천에서 온 세리를 저와 면담시켜 주십시오. 다시는 세금을 받으러 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방안이 없던 현감은 그를 영천 세리와 만나도록 해 주었다.

이 소사는 영천 세리를 보자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쳤다.

“산은 영천의 산이니 산세를 내는 것이 바른 일ियो. 그러나 이제 저 산이 필요 없게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영천에서 산이 깔고 앉은 땅값을 내든지, 아니면 산을 떼가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영천 세리는 할 말을 잃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

● 우는 바위

장기면 신창리 창바위 마을 뒤 편에는 높이 약 10m의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우는 바위 또는 울바위라고 한다.

옛날 이 바위 위에는 금슬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부인이 아이를 낳은 후 병을 얻어 그만 죽고 말았다. 아내를 몹시 사랑했던 남편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몇 달 후에 아내 따라 죽게 되었다. 고아가 된 아이는 그래도 마을 아낙들의 보호 아래 무럭무럭 잘 자랐다. 철이 들면서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가 있는데 자기만 부모가 없는 것이 이상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부모가 죽은 이야기를 다해 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이 바위 위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울었다고 한다. 지금도 비가 오려고 하면 가끔 그 바위에서 잉잉대는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 용바위

장기면 금곡리 입구에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양의 바위가 있다. 사람들은 용바위라고 부르는데, 옛날 이 바위 앞에는 큰 호수(바다라고도 함)가 있었고, 그 호수 위에는 구름이 무지개 모양의 다리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용은 이 구름다리를 통하여 동해 바다를 드나들었다고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용은 그만 바위로 변했다고 한다.

그 후 이 마을에는 큰 부자가 생겼는데, 과객이 끊이질 않았다. 이 집 며느리는 손님 대접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시주 온 스님을 붙잡고 손님이 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청하였다. 스님은 용바위의 여의주에 해당하는 돌을 빼 버리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다. 며느리는 지체 없이 그 돌을 빼 버렸다. 그러자 그 집의 가세는 점점 기울어져 갔고 과객의 발길도 뜸해지게 되었다. 물론 그 부잣집은 결국 가난을 면치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지금도 이 바위에는 영험이 있다 하여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 딸을 기다리던 망재

장기면 영암리에는 망재라는 산마루가 있다.

동해안에는 옛부터 왜구들의 침입이 잦았다. 그 옛날 이곳에 한 어부가 여선(如仙)이라는 예쁜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왜구가 침입하여 여선을 넘겨 달라고 했다. 처녀를 넘겨주면 그냥 돌아가겠으나, 만약 거절한 경우엔 온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

마을 책임자는 여선의 부모를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였다. 그러나 여선의 부모는 죽었으면 죽었지 딸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여선은 자기 한 목숨으로 이 마을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결심했다. 부모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왜구들에게 잡혀가게 되었다.

여선이 잡혀간 이후, 이 마을에는 왜구의 침입이 일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선의 부모는 하루도 쉬지 않고 산마루에 올라가 딸이 사라진 바다를 바라보면서,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한이 서린 이곳을 사람들은 망재(望재)라 불렀다 한다.

훗날에 이 이야기를 현감이 신창리 죽하(竹下)의 대나무 숲 부근에 여선낭자영세불망비(如仙娘子永世不忘碑)를 세웠는데 이 비는 홍수 때 유실되었다 한다.

● 신령스런 갯바위

장기면 영암리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인 갯바위 마을 중앙에 큰 바위가 하나 있다. 높이 2m정도 둥근 바위인데 넓이는 8평 정도가 된다. 그 모양이 커다란 갯과 흡사하여 갯바위(冠岩)라고 부른다.

옛날 과거보러 가던 선비가 매우 피곤하여 잠시 갯을 풀고 쉬다가 깜빡 갯을 잊고 그냥 가버렸는데, 그 갯이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또 작은 바위가 햇살을 받으면서 삿갓모양으로 점점 자라났다고도 한다.

그 후로 이 바위에 치성을 드리면 효험이 있어 영암(靈巖)이라고도 하였다 한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관암에서 영암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 장군정(將軍井)과 모포(牟浦) 줄

장기면 모포리의 뇌성산 아랫마을, 칠전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장군정(장군수)이 있다. 그리고 칠전에는 이 장군정과 관련 있는 아주 오래 된 모포줄이 있다.

옛날 장기현감의 꿈에 뇌성산에서 한 장군이 용마를 타고 내려와서 이 우물물을 마시더니

“이 곳을 만인이 밟아주면 마을이 번창하고, 태평하며,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르고 사라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밟아주기 위하여 줄다리를 시작했다고 한다. 현감이 현몽한 날이 음력 8월 16일이므로 이 날로 정하여 줄을 당겨 왔다고 한다.

장군이 내려와 물을 마신 우물이라 하여 장군정, 장군수라 하며, 모포 줄다리는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다.

● 쌀알이 떨어졌던 국구암(國救庵)

장기면 임중리 임중못 계곡에 국굴암(국구암, 국승암)이라는 석굴이 있다.

마미(磨麩)라는 한 도승이 임진왜란을 피하여 이 석굴에서 수도를 하고 있을 때 석굴의 천장에서 흰쌀이 한 알씩 떨어졌는데 하루 동안 모으면 한 사람의 끼니가 될 정

도였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절친한 친구가 찾아왔다고 한다. 양식이 걱정된 스님은 쌀 구멍을 크게 하면 많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하고는 지팡이로 그 구멍을 크게 파 버렸다. 그러자 쏟아지리라고 믿었던 쌀은 나오지 않고 그때부터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 할배 할매 바위

장기면 금곡리 입구에는 용암이라는 바위산이 있다. 머리를 바다 쪽에 두고 동서로 누운 모습은 마치 용트림을 하는 것과 같다.

이 용암의 남쪽에 다소곳이 앉은 할매 바위와, 몹시 화를 낸 것 같은 할배 또는 영감바위가 있다.

용두의 동쪽으로 금곡들이 펼쳐져 있는데 옛날에는 바다 밑이었다고 한다. 호수 같은 이곳에는 항상 구름이 비치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를 ‘구름다리’라고 불렀다. 이 구름다리를 이용하여 용궁과 물을 왕래하던 용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용왕의 미움을 받아 그만 돌로 변하게 되었다 한다. 용은 이웃 할매의 아들을 대신 보내어 용서하여 줄 것을 간청하기로 하였다.

이웃의 할매 부부는 아들 7형제를 두고 있었다. 바위가 된 용은 고집 센 할배 몰래 할매만을 꾀어 막내아들을 얻어냈다.

용의 부탁을 받은 할매의 막내아들은 구름다리를 건너 용궁으로 갔으나 약속된 기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할배는 할매에게 아들을 찾아오지 않는다고 성화가 대단하였다. 할배의 성화도 성화지만 돌아오지 않는 아들 때문에 애를 태우던 할매는 가슴이 타들어가서 그만 돌이 되어 버렸다.

나중에 막내아들이 없어진 이유를 알게 된 할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받아 역시 돌이 되고 말았다.

지금까지도 할배, 할매 바위는 서로 외면한 채 막내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 서기어린 괴석

장기면 방산리 망해산(望海山) 고석사라는 신라때 절이 있다. 신라 선덕여왕 7년(638) 어느 날, 동쪽에서 세 줄기 빛이 날아와서 3일간 계속 궁궐을 비쳤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왕은 사람을 시켜 빛이 시작된 곳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사자는 사기가 발하는 동쪽 방향으로 찾아가 보니 그 빛은 현 고석사의 한 괴석에서 발하고 있었다. 왕은 태사관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그 괴석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절을 지으면 나라가 평화로울 거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분황사 주지인 혜능국사에게 그 바위를 깎아 불상을 만들고 절을 짓도록 하였다.

● 의로운 바위

장기면 양포리에서 신창으로 가는 국도변에는 험한 바위산이 하나 있다. 늘 돌이 자주 굴러 떨어져 위험한 곳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없다고 한다. 옛날 한 선비가 늦은 밤에 이 길을 지나가다가 도적을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난데없이 산에서 돌이 굴러 와서 도적들을 덮치는 바람에 선비가 무사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바위산을 의로운 바위라고 불렀다고 한다.

● 마고할멈이 운반한 교석초(矯石礁)

대보면 구만리에는 마고할멈이 살고 있었다. 이 할멈은 종종 영덕 축산에 다녀오곤 하였다. 영덕까지는 길이 멀고 또 험했다. 그래서 영일만에다 돌다리를 놓고자 하였다. 구만리에서 축산까지의 바다는 평소에도 파도가 셀 뿐 아니라 물도 깊었다. 마고할멈은 물살이 잔잔한 날을 택하여 구만리 앞 바다에서 돌다리를 놓기 시작하였다. 치마폭에 큰 바위를 싸서 열심히 운반하였으나 날이 새는 바람에 완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다리를 놓으려고 운반한 바윗돌이 구만에서 축산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바다 밑에 이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교석초라고 부른다.

●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구룡소

대보면 대동배에는 아홉 마리 용이 살다 승천하였다는 구룡소가 있다. 이 구룡소는 높이가 40~50m 정도이며, 둘레가 100여m의 움푹 패인 기암절벽이다. 용이 살았다는 소(沼)에는 맑은 바닷물이 드나들고 바닥의 평평한 곳에 여러 형상의 바위가 솟아나 있다.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할 때 뚫어진 9개의 굴이 있다.

● 강사리의 고인들

대보면 강사1리에는 높이 3m, 둘레 8m정도의 바위가 있다. 강사3리 명월마을에도 이와 비슷한 바위가 있다.

옛날 금강산을 꾸미기 위하여 하늘의 신들이 전국에 있는 바위들을 나르게 되었다.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은 하늘의 한 여장수가 바위를 하나는 머리에 이고, 또 하나는 치마에 싸서 금강산으로 운반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금강산에 바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전갈을 받고는 그 바위들을 이곳에다 그냥 버렸다고 한다.

2. 복구지역

● 두호지(斗湖池)

옛날 예맥(濊貊)의 어느 왕이 신하들을 모아 놓고 장생불사(長生不死)할 방법을 물었다. 마침 아침 잘하는 한 신하가 아뢰었다. 그 신하는 여자의 음모(陰毛)를 많이 모아 이불과 방석을 만들어 덮고 자기도 하고, 깔기도 하는 등 항상 여자의 음모 위에서 생활하는 것이 장생불사의 묘약이라고 대답하였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여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려 여자의 음모를 잘라 모으게 하여 방석과 이불을 만들어 깔고 덮고 살았으나 오십이 못되어 죽어버렸다.

아침꾼들로 득실거리는 이 나라의 신하 가운데 유독 충성스러운 군수가 하나 있었다. 그는 안락군(安樂郡)의 군수로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여 “안락공, 안락태수”라고 불렀다. 안락공은 백성들의 비참한 광경을 보다 못해 왕에게 상소도 올리고 충간도 하고 직소도 하였으나, 왕은 충직한 신하의 간언을 용납할 줄 모르고 도리어 크게 노하여 그를 당장 잡아 참형(斬刑)에 처하라 하였다.

안락공은 포악한 정치의 제물이 되기보다는 나라 밖으로 망명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가족을 이끌고 밤을 이용하여 일엽편주(一葉片舟)를 타고 예맥국을 탈출하였다. 그리하여 남으로 내려와 신라 태화현 통양포(지금의 포항시 두호동)에 상륙하였다.

그런데,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곳에 오기는 하였으나 살아나갈 방도는 실로 막연하였다. 안락공은 부득이 그 부인과 아들을 통양포 장재(掌財)집의 식모로 맡겨두고 자신은 속세를 떠나 경주 지림사(祗林寺)에 입산하여 승려가 되었다.

통양포 장재는 안락공이 떠난 후 미인인 부인에게 음탕한 마음을 품고 그 아들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먼 곳으로 쫓아 보내고는 부인이 혼자 있는 틈을 노려 자기의 야욕을 채우고자 회유와 협박을 하였다. 하지만 정숙한 부인이 끝내 거절하므로, 장재는 어느 날 밤 부인을 죽이고 그 시신을 망연산 대밭 숲 속에 버리고 말았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십수 년이 지난 어느 날, 장재의 집 사립문 앞에 스무 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중이 나타나 목탁을 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면서 시주를 청하였다. 잔악하고 인색한 장재는 뜰 마당에 있는 쇠뿔을 가리키면서 시주할 것은 없고, 이 쇠뿔도 좋다면 하겠다고 말하였다.

중은 빙그레 웃으며 쇠뿔도 좋으니 시주를 하라며 바람을 풀었다. 장재는 쇠뿔을 가래로 떠서 바람 안에 넣어 주었다. 그래도 중은 장재 앞에 합장하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외며 돌아서니 장재를 위시하여 주위의 가복들이 박장대소하며 조소를 퍼부었다.

중이 장재집 사립문을 나와 수십 보를 걸어 나오자 홀연히 일진광풍이 어지럽게 불어닥치더니 천지를 진동하는 뇌성벽력이 장재집 지붕위에 떨어지면서 그 집이 땅 속으로 함몰되기 시작했다. 장재집 사람들이 사람 살리라고 외치는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더니 장재집 터는 순식간에 못이 되고 말았다.

젊은 중은 언덕 위에 서서 아무 표정 없이 함몰되어 가는 광경과 장재를 위시하여 전 가족이 죽어 가는 아우성과 그 죽음의 최후의 순간을 지켜보고 합장배례하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중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장재집에서 쫓겨난 안락공의 아들이었다.

안락공이 기림사에서 병을 얻어 죽은 후 그 아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버린 곳에 사찰을 건립하여 ‘안락사’라 부르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불을 빌면서 한평생을 마쳤다고 한다.

장재집이 함몰하여 변한 못을 후세 사람들이 ‘안락지’, ‘장재지’, ‘두호지’ 등으로 부르고 있다. 지금의 포항시 두호동 동부초등학교 서쪽편에 있는 ‘새못’이라고 하는 못이 그 유적이라고 한다.

● 망부산(亡夫山)

포항시 용흥동에 위치한 연화봉(蓮花峰)은 흔히 솔개재라고도 하고, 연꽃봉 혹은 망부산(望夫山)이라고도 하는데, 예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온다.

신라 말엽 조정에 소랑(蘇郎)이라는 덕망이 높고 청렴결백하며 충직한 대신이 있었다. 소랑은 청빈하고 공평무사하여 부패한 조정 대신들 가운데서도 독야청청(獨也靑靑)의 청백리로 백성들로부터 크게 신망을 얻고 있었다. 그 부인 또한 절세미인이어서 ‘장안 선녀’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였고, 정숙한 부덕은 온 백성의 거울이 되어 왔다.

그런데 소랑의 부인이 절세미인이라는 소문을 들은 황음무도(荒淫無道)한 임금, 부인을 한번 만나보고자 기회를 노리던 중 조정에 출사(出仕)한 소랑에게 그 날 밤 미행(微行)으로 소랑의 가정에 들고자 한다고 일렀다. 임금이 신하의 집에 거동한다는 것은 여간 신임이 두텁지 않고는 바랄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소랑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다급히 자기 집에 돌아와 부인에게 임금의 뜻을 전하는 한편, 융숭한 대접은 풀고자 연회 준비를 하라고 이르고 임금의 행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임금은 미복차림으로 소랑의 집에 당도하여 진수성찬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임금은 술이 얼큰히 취한 가운데 인사차 들어온 부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자, 매혹되어 이성을 잃고 부인을 범할 마음을 품게 되었다. 임금은 그날부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소랑을 죽이든지 삭탈관직하여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든지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사악한 계획을 세우기에 골몰하였다.

때마침 일본으로부터 사신이 와서 신라 조정에 조공을 바치고 돌아간 후 그 답례로 일본에 파견할 사신을 선임하게 되자, 임금은 소랑을 적임자로 임명하였다. 소랑이 일본으로 간 후 임금은 그 부인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수 차례 감언이설로 유혹하고 회유하였다, 그러나 지조 높은 부인은 끝내 임금의 강압을 물리치고 결사 저항하였다.

임금은 온갖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부인에게 대노하여 죽여 버리고자 하였으나 외국사신으로 떠난 대신의 부인인 점과 임금의 체통을 고려하여 재산을 몰수하고 먼 곳으로 추방하여 버렸다. 소랑부인은 소랑이 타던 말과 개, 그리고 노비 한 사람을 데리고 이리저리 방랑하다가 동쪽 바다가 잘 보이는 연화봉에 올라 움막을 짓고 기거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 소랑이 돌아오는 배만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임금의 명을 받고 사신으로 일본에 건너간 소랑은 충실하게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뱃길에서 심한 폭풍우를 만나 불행하게도 수중고혼(水中孤魂)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낭군의 슬픈 소식을 전혀 알 길 없는 소랑부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화봉 움막에서 오직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병이 들어 5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에 소랑이 타던 말과 개도 돌봐주던 주인을 잃고 산지사방으로 헤매다가 굶어죽었다고 한다.

오직 한 남자의 지어미로 일부종사(一夫從事)의 굳은 정절을 지키다가 죽어간 소랑 부인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부인을 추모하여 후히 장례를 지내는 한편, 말과 개의 무덤까지 만들어 주었으며,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삼간초옥(三間草屋)을 건립하여 부인의 혼백을 모시고 망부사(亡夫祠)라 이름 지어 부인의 넋을 위로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연유하여 이 산을 망부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현재 포항시 용흥동 연화재에 오르는 국도변에 소랑부인의 정절을 기리는 비석이 있다.

● 불항동의 금부처

옛날 학산동에 김해에서 온 김달식(金達植)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나이가 62세나 되어도 자식이 없어 항상 한탄하였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죽림산은 동해의 용신이 보내온 천하의 명산이므로 백일동안만 그 산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김달식은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개의치 않고 매일 죽림산에 올라가 산신령에게 아들 하나를 접지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 가운데서 금불상 하나를 주워 기뻐하는 것을 발견했다. 김달식은 농부에게 다가가 백금을 주고 불상을 얻어 죽림산 기슭을 파고 불상을 앉힌 후 매일 기도하였더니 과연 아들을 얻었다. 이 소문이 부근 주민들에게 전파되어 금불상 앞은 각지로부터 자식을 얻기 위해 기원하러 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니 거의 모두가 아들을 얻었으므로 불항동(佛項洞)이라 한다.

● 자미도

자미도는 동해 한 복판에 있다고 전해지는 상상의 섬이다. 포항 두호동에 살던 어부 이모라는 사람이 고기잡이를 하다가 심한 풍랑을 만나 며칠 동안 정처 없이 바다를 떠돌아다니다가 한 섬에 닿았다. 섬에 올라 보니 그 섬에는 여러 가지 수목과 대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수일 동안 물 한 모금 구경하지 못하고 풍랑에 시달리면서 바다를 헤매다 보니, 7~8명의 뱃사람들 전부 기아로 인한 빈사 상태였다. 사람을 찾아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섬에 올라가서 울창한 수풀을 헤치고 섬 깊숙이 들어가니 고색창연한 삼간토막들이 띄엄띄엄 있었다. 주위를 살펴보니 익어 가는 농작물도 더러 보였다. 어느 한 집 앞에서 사립문을 두드리며 사람 살려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 방문이 열리면서 백발노인이 나와

“오늘쯤 이 섬에 진귀한 손님이 올 것이라고 짐작하였더니 그대들이 왔구나. 그러나 이 섬에는 속세 사람들이 살 곳이 못 되니,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뱃사람들이 빈사 상태의 시장기를 호소하니, 떡을 한 개씩 나누어주면서,

“이 떡 한 개를 먹으면 수일 동안 시장기를 모르고 지낼 수 있다. 여기 며칠 동안 쉬면서 피로를 풀고 이 섬을 떠나도록 하라. 또 너희들이 타고 온 배가 많이 부서져 바다를 건널 수 없으니, 내가 배 한 척을 줄 테니까 그 배를 타면 순식간에 육지를 닿을 것이다.”

하고 말했다. 과연 수일 후 선원들의 건강이 회복된 것을 보고 사람 7~8명이 탈 수 있는 배 한 척을 내주었다. 노인이 이르는 대로 배를 타니 순식간에 강원도 송월 땅에 닿아 선원들은 목숨을 부지하였다 한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탐관오리들의 횡포를 피해 배에 가족을 싣고 식량과 물을 준비하여 자미도를 향하여 떠났다가 동해바다 한복판을 헤매는 어부들이 허다하였다고 전한다.

● 죽림산(竹林山)

포항시 북구 용흥동 포항의료원 북쪽에는 정상부에 층층탑이 있는 죽림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온다.

오랜 옛날 감실지(甘實池, 현 포항의료원 앞)에서 한 젊은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빨래를 하고 있던 여인이 갑자기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우레 소리에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어디선가 큰 산이 하나 동해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것이었다. 여인은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아이고, 산 날아온다.”

하고 소리쳤다.

그 순간 날아오고 있던 산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는데, 산의 형세가 봉황이 날아가고 있는 모습 같다 하여 봉황산이라고도 하고, 다리를 구부리고 있는 말등과 같다 하여 복마산(伏馬山)이라고도 하며, 말이 달리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주마산(走馬山)이라고도 하고,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하여 죽림산이라고도 한다.

● **학산(鶴山)**

먼 옛날 지금의 포항시 북구 학산동 바닷가 조그마한 못가에서 한 아낙네가 소복단장을 한 채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크고 흰 학 한 마리가 아낙네의 빨래터 옆에 날아와 앉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아낙네가 영겁결에 빨래 방망이로 학의 머리를 치자 학은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져 버렸다.

학이 쓰러지는 순간 동쪽 하늘에서 학과 같이 생긴 커다란 산이 날아와 아낙네를 덮치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이에 연유하여 이 산을 학산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마을 이름도 학산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북송리 간수**

흥해읍 북송리 큰마을과 건너각단 마을 앞 산 정상부에 목이 잘록한 큰항아리를 묻어놓고 정월보름에 간수를 채워 넣는 풍습이 전해온다. 옛날 이 마을에 화재가 일어나 마을이 재난을 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이에 용하다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마을 앞산이 ‘불화(火)자 형상이어서 불이 자주 나는데, 정상부에 간수병을 묻어 놓고 해마다 부어넣어 마르지 않게 하면 화재가 멎을 것이라 하였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정월대보름에 간수병을 개봉하여 간수의 잔량을 확인한 다음 간수를 채워 넣는 풍습을 이어오고 있다.

● **쌍괴정(雙槐亭)의 울음**

흥해읍 초곡리 윗 사일 마을에는 칠인정(七印亭)이란 인동장씨 문중의 정자가 있다. 정자 뜰에 있는 느티나무는 가슴높이둘레가 3.5m 나 되는데, 줄기 밑동에서 두 가지가 뻗어 쌍둥이 모양을 하고 있다. 이 나무는 나라에 큰 우환이 닥칠 때면 밤중에 소리내어 운다고 한다. 6.25 전쟁 때 주민들이 피란을 갔다가 돌아오니 “우~우~” 또는 “왕~왕~”, “붕~붕~” 하고 울었다고 한다.

● **천곡사 석천(石泉)**

흥해읍 학천리 천곡사에는 석천이라는 샘이 있다. 신라 27대 선덕여왕은 피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였다. 마침 석천의 소문을 들은 신하가 동쪽 도음산 천곡령(泉谷嶺) 아

래 효험 있는 샘에 가서 씻을 걸 권하였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안강, 기계, 신광을 거쳐 흥해 천곡령에 도착하여 석천에 목욕을 하고나니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다고 한다. 여왕은 하도 신기하여 고마워서 자장율사(慈裝律師)로 하여금 그 곳에다 절을 짓도록 명하고 이름을 천곡사(혹은 靈谷寺)라고 하였다 한다.

절은 안타깝게도 6.25전쟁 때 전소되었으나 석천만은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채 아직도 그 맑음을 자랑하고 있다.

● 천마산(天馬山)

흥해읍 곡강리 천마 저수지의 골짜기에는 팔매돌이라 불리는 큰 바윗덩어리가 7~8개 있다. 옛날 한 장수가 망천산에서 들팔매질을 하여 힘을 기르던 흔적이라고 전해 온다. 이 장수가 하루는 자기의 애마(愛馬)가 화살보다 빠르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 망창산에 올라 활을 쏘 후 쏘살같이 달려 평소 자기가 던져 놓은 팔매돌 부근에 다다랐다.

그러나 화살이 나타나지 않자 이미 어디 숲 속에 말보다 먼저 도착했다고 단정하고는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애마의 목을 잘라 버렸다. 순간 못독 서편의 곡강최씨(曲江崔氏) 묘역 아래에 그때서야 화살이 날아와 깊이 꽂혔다. 화살이 박힌 자리는 명주실한 타래가 드리워질 정도로 깊은 샘이 되었는데, 이에 그 연유하여 이 산 이름을 천마산(天馬山)이라 하고, 동쪽 산머리를 말머리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흥해의 회화나무

조선시대 지상학자(地相學者)로 어전관상감(御典觀相監)이었던 이성지(李聖智)가 영남지방의 산세를 조사하다가 흥해에 이르러 흥해분지를 보고, 천 년 옛 고을의 승지(勝地)라 하였다. 그리고는 또 흥해군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흥해는 다풍질(多風疾)이며, 5대 이상 이어서 살 곳이 못된다. 그 이유는 지세와 지리적으로 선사시대에는 큰 호수였으며, 수만 년 동안 호수였던 곳을 동편 낮은 곳의 산맥을 절단하여 그 곳으로 물을 흘러 보내고 평야를 이룩하였으므로 가뭄에는 걱정이 없으나 그 반면에 풍다(風多), 수다(水多), 습다(濕多)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틀림없이 괴질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는 이 풍습기(風濕氣)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회화나무를 심도록 권하였다. 회화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하여 습기를 4, 5배 이상 섭취하기 때문에 땅 속의 습기를 제거하는 데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 말에 따라 흥해 군수는 회화나무심기를 권장하여 물 좋고 농사 잘 되고, 또한 사람 살기 적당한 오늘의 땅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 영일민속박물관 회화나무 노거수가 이러한 전설을 증언하고 있다.

● 법광사의 신비

신광면 상읍리에는 법광사터가 남아 있다. 웅장하던 옛 법광사가 토호의 부탁을 받은 초부가 방화를 하여 소실되었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조선조 철종 14년(1863년)이라 한다.

법광사가 소실되기 3개월 전, 신광면 죽성동(대골)의 에 거주하던 박기래(朴耆來) 소년이 어느 날 밤 마당에 나갔다가 이상한 일을 목격하였다. 법광사 쪽에서 큰 불덩이가 비학산 꼭대기까지 치솟아 그 일대를 대낮같이 밝히더니 남쪽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소년은 이튿날 풍수인 서씨 노인에게 이 광경을 얘기하였다.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노인은 다 크게 탄식하며 말했다.

“이제 법광사 기운이 다한 모양이구나. 법광사는 곧 폐사가 될 것이고 양산 통도사가 융창하게 될 것이다.”

노인은 이어서 앞일을 예측하기를 예부터 비학산을 중심으로 한 신광지형을 학포란 안호지형국(鶴抱卵案湖之形局), 즉 학이 호숫가에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하였다.

그런데 호리등 계곡의 호수를 메워 분지를 조성한지 천여 년이 지났으니 호수변에 서식하는 새인 학이 호수가 없어진 곳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즉 비학산의 지운(地運)과 지정(地精)이 바로 불덩이 형상으로 보였다는 것이었다. 그 지정이 남으로 날아가 버렸다는 것은 산강수다(山江水多)한 통도사로 옮겨 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광사는 물론이고 같은 비학산 지맥상에 놓인 천곡사도 폐사될 게 틀림없다고 하였다.

이런 일이 있는 지 3개월 후에 법광사가 불에 타서 폐사되었으며, 신기하게 천곡사 역시 6.25사변 때 병화로 소실되었다.

조선의 지상학자 이성지(李聖智)의 요남비결(遼南秘訣) 영남조(嶺南條)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島胡來侵 鐵馬橫行 胡人模倣 人備千里 毛人飛來 以光殺人 萬里遠程 不面交話
三韓分土 鼎立相爭 百里遠距 人烟絕無 飛鶴山下 炮聲振動 千年古家 一朝化塵

도호내침(島胡來侵), 즉 섬 오랑캐가 침입한다는 것은 일제의 침략을 말하는 것이고, 철마횡행(鐵馬橫行), 즉 쇠말이 횡행한다 함은 기차를 말하는 것이고, 호인모방인비천리(胡人模倣 人備千里), 즉 외국인을 모방하여 사람이 천리를 날아간다 함은 비행기를 뜻하는 것이고, 모인비래 이광살인(毛人飛來 以光殺人), 즉 털이 많은 사람이 날아와서 빛으로 사람을 죽인다 하니 서양인의 원자탄을 말하는 것이고, 만리원정 불면교화(萬里遠程 不面交話), 즉 만 리 떨어진 곳에서 얼굴을 대하지 아니하고 말을 한다 하니 현재 전신전화일 것이고, 삼한분토 정립상쟁(三韓分土 鼎立相爭), 즉 삼한 땅이

나뉘져서 서로 다룬다 하니 휴전선과 6.25전쟁의 참상을 말하는 것이고, 비학산하 포성진동(飛鶴山下 炮聲振動), 즉 비학산 아래 총성이 진동함은 6.25동란을 말하는 것이고, 천년고가 일조화진(千年古家 一朝化塵), 즉 천년 고가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 함은 법광사, 천곡사의 폐사를 뜻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 마주마을 아기장수

신광면 신리마을의 이씨 집안에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데 이 아기는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는 일이 없었으며, 다른 아이들보다 몇 배로 빨리 커는 것이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이웃집 일을 도와주고 늦게 돌아왔는데도 아기 보채는 소리가 나지 않기에 방안을 엿보게 되었다. 그런데 간신히 기어 다니는 아기가 시렁 위에 뛰어 오르기도 하고, 벽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는 등 놀라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너무 놀란 어머니는 집안 어른들에게 자신이 본 일을 알렸다. 집안 어른들은 그 아이가 잘 때 겨드랑이를 한 번 보라고 일러 주었다. 밤에 몰래 들여다보니 과연 날개 한 쌍이 곱게 접혀 있었다. 아기장수가 틀림없었다.

아기장수가 태어나면 나라에서는 역모를 피할 우려가 있다하여 경계를 하였다. 이를 익히 알고 있던 그 집안에서는 역적으로 몰릴까봐 겁을 먹고, 몰래 아기를 없애기로 의논하였다. 아기가 잠든 틈을 타서 콩 한 섬을 아기의 가슴 위에다 얹어 두었다. 놀려서 죽기를 바랐다. 그러나 잠을 깬 아기는 가볍게 떨치고 일어났다. 그 다음날에는 콩 두 섬을 가슴에다 얹었다. 몇 번 몸을 뒤척이던 아기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3일 후, 마을 뒷산자락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큰 용마가 나타나더니 3일 동안 주인 잃은 슬픔으로 슬피 울다가 마전마을 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그 후 용이 나온 샘을 용천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용천지(龍泉池)로 변했으며, 마전은 용마가 날아갔다고 하여 마주(馬走)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만석리 선돌

신라 때 경주에 성을 쌓기 위하여 각처의 돌을 모으게 되었는데, 어느 장수가 바위 하나를 지고 경주로 가다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돌이 필요 없다는 전갈을 받고 이곳에 두었다.

● 금정()

풍수서인 성지비결(聖智秘訣)에 의하면 청하면 금정리는 물위에 뜬 금바가지 형국이라 하여 금호(金湖)라고 불렀다. 그런데 고려 초, 어느 날 한 절름발이 누이와 소경인

오빠가 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다. 목이 말랐던 남매는 마을 어귀에 있던 샘을 찾았다. 누이는 오빠에게 먼저 물을 떠 주고 나서 자신이 마시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이었다.

영겁결에 “금 보라” 고 소리를 쳤다. 이 소리에 놀란 오빠가 눈을 번쩍 떴는데 그만 앞이 환하게 열리며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현감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남매의 우의를 칭찬하고, 샘의 이름을 금정이라고 붙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의 이름도 이에 따라 부르게 되었다.

● 까치고개

청하면 미남리와 고현 사이의 고개를 까치고개(鵲峴)라 한다.

조선 숙종대왕은 백성을 위하여 미행을 자주 하였다. 어느 날 숙종대왕은 미복으로 팔도강산을 순시하다가 이 고개까지 이르니 날이 저물었다.

당시 이 고개는 삼림이 울창하여 낮에도 사람들이 떼를 지은 후 넘어갈 만큼 험악했다고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어디서 날아 왔는지 까치가 임금의 앞에서 세 번을 울고 날아갔다.

임금은 괴이하게 생각하고 고개를 넘지 않았다. 하룻밤을 고개 밑에서 지내고 이튿날 고갯마루에 올라 보니 도적무리에게 살해당한 시체들이 나뿔굴고 있었다. 까치가 임금을 살린 것이었다. 이에 임금은 그 까치의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 고개 이름을 까치고개(鵲峴)라고 붙였다.

● 오두마을 돌거북

청하면 용두리의 오두마을은 조선 숙종조 전만 해도 오암대사(鰲岩大師)나 이원양(李元良)과 같은 인물들을 배출할 정도로 번성하던 마을이었다. 마을이 번창할 때는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멎질 않았으며, 나그네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나날이 찾아오는 길손들을 대접해야 하는 아낙네들은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부엌일에 지친 아낙네들은 모이기만 하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였다.

어느 날 샘가에서 이런 불평을 하고 있을 때 마침 한 스님이 지나갔다. 아낙네들은 스님에게 그들의 고생스러움을 하소연하면서 손님이 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낙네들의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소원이 이뤄지도록 해주겠다고 쾌히 응낙했다. 그리고는 망치와 정으로 하천 건너에 있는 돌구바위라는 마을의 상징인 돌거북의 머리 부분을 뜯어버리는 것이었다.

그 후부터 어찌된 일인지 흉년이 계속되면서 마을의 형편이 점점 기울기 시작했다. 가난하여지니 자연히 나그네의 발길도 끊어지게 되었다.

● 소동리 범바위

청하면 소동리 범바위 마을에는 범같이 생긴 큰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아주 신령스러워 밖으로 많이 노출이 되면 호암리가 풍년이 들며 좋은 일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소동리에는 나쁜 일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이었다. 특히 범의 형상이 완전히 나타날 정도로 파헤쳐지면 소동리의 소들이 겁을 먹고 나뒀다고 한다. 그래서 소동리 사람들은 범바위를 땅에 묻으려고 하고, 호암리 사람들은 되도록 파헤치려고 했다. 범바위 때문에 옛날에는 두 마을이 자주 싸웠다고 한다. 지금은 거의 땅에 묻히고 등 부분만 조금 남아 있으나 아무도 파헤치거나 묻으려고 하지 않는다. 또 그런 재앙이나 좋은 일이 생겨나지도 않는다고 한다.

● 숫구재의 명암()

청하면 명안리(鳴安里) 서쪽에는 덕성산이 있다. 이 산에는 마북으로 가는 숫구재라는 고개가 있다. 그 기슭에 높이 3m가량의 초가삼간 만한 둥글넓적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명암(鳴巖)이라고 부른다. 옛날 이 바위는 밤마다 세 번씩 울었다고 하며, 이 바위가 울면 온 마을이 평안하고 풍년이 들었으며, 바위가 울지 않으면 가뭄과 질병이 찾아왔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위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지금도 주민들은 바위가 울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설과 추석 등 1년에 몇 차례씩 풍물로 바위를 즐겁게 하기도 한다.

● 청하 용산(龍山)

청하 월포리 서쪽에는 용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다.

옛날 이곳에는 금슬은 좋았지만 자식을 두지 못한 유씨 부부가 살고 있었다. 유씨 부부는 자식을 얻기 위하여 천지신명에게 정성을 다해 빌고 또 빌었다. 그 정성의 덕이었을까. 아들을 하나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여느 아이와는 다르게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마음대로 움직이고 걸어 다녔다.

유씨 부부는 은근히 걱정이 되어 집안 어른들을 불러 모아 이 일을 의논했다. 집안 어른들은 한결같이 큰일을 저질러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라면서 죽여 없애야 한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특별한 아이인 만큼 이 아이가 날 때 땃줄 끊은 가위로 찢러 죽이든지, 다듬잇돌로 눌러 죽여야 한다고 했다.

유씨 부부는 어렵게 얻은 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유씨 부부는 아들을 죽이기로 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는 순간 그 산에 살던 용이 아들의 한과 함께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용이 하늘로 날아가 버린 산이라 하여 그 산을 용산이라고 불렀다.

● 탐산사의 폐사

청하면 황암리에 신라 고찰 탐산사지가 있었다. 탐산사는 신광 법광사의 말사였지만 전답을 수백 마지기나 소유하고 있었다. 추수 때가 되면 승려들은 지주로서 횡포가 심했으며 소작인들을 몹시 괴롭혔다.

어느 해 승려 한 사람이 추수 분곡을 위하여 소작인 집에 들러서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다가 취기에 못 이겨 원구뭇재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한기를 느껴 깨어보니 아주 큰 호랑이가 앞에 턱하니 앉아 있었다. 대경실색한 승려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범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어사용을 부르며 고개를 넘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녀이 반쯤 나가있던 승려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려달라고 소리쳤다. 어사용을 부르며 다가온 사람은 태연스럽게 범을 향하여 꾸짖는 것이었다.

“너는 산중의 왕이라고 하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해하겠다니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는 범을 힘껏 차서 계곡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범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범은 계곡에서 기어올라 와서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사람과 범은 생사를 건 혈투가 벌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점점 밀렸다. 힘이 빠진 사람이 승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놈! 소리 한 마디만 해주면 내가 범을 잡을 수 있소. 빨리 고함을 쳐주소.”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승려는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쳐버렸다.

웃은 누더기가 되었으며, 온몸은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온 승려에게 주지스님이 그 원인을 물었다. 승려는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말을 다 들은 주지는 크게 화를 냈다.

“석불을 모신 몸으로 음주 혹취가 부당하고, 사무(寺務)를 띄고 나가서 속가의 폐를 끼침이 부당하고, 인호상쟁(人虎相爭)에 사람을 도와야 하는 길을 망각함은 대자대비의 불제자로서 과문의 큰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부처님을 대신하여 사문살정(寺門殺精)을 하노라.”

주지는 목침으로 승려의 머리를 쳐서 죽였다. 당시의 나라 법에는 승려가 살인하면 참수하고 그가 있던 절은 폐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탐산사는 폐사 처분되었다고 한다.

● 내연산 산신 할무당

오랜 옛날 보경사에 박씨 성을 가진 할머니 보살이 한 분이 있었다. 이 보살은 남편도, 자식도 없는 외톨이 신세였다. 하는 수 없이 보경사 절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이다. 박씨 할머니는 나이가 자꾸 많아지고, 죽을 때가 가까워 오자 슬슬 걱정이 돼서 자주 부처님한테 “부처님, 부처님, 날 공들이는 데 데리고 가 없애 주소.” 하고 기

도를 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에 호랑이가 와서 할머니를 업고는 삼지봉 아래 능선에 모셔다 놓았다. 이 분이 바로 내연산 산신 할무당 할매다.

● 하광동 덕수산

약 5백 년 전 지씨와 용씨 부인이 하광동(광천1리)에 정착하여 살았다. 지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특출한 기력을 가진 아기였다. 괴력을 가진 아이는 역적이 된다는 풍설이 있어 하는 수 없이 죽여 버렸다 한다. 아기가 죽는 순간 앞산에서 용마가 뛰쳐 나와 들판에서 덕수질(곤두박질)을 하면서 앞산을 할퀴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에 연유하여 이 산을 덕수산이라 한다. 마을 어귀 노송림 속 마을제당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에 지씨와 용씨의 위패를 모시고 동제를 지내고 있다.

● 조사리 용치바위

천계(天界)의 한울집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인간 사회를 굽어보고 계셨다. 그런데 인간들은 날이 갈수록 사악하여 지고, 하느님의 뜻과는 다르게 제멋대로 생활하고 있었다.

보다 못한 하느님께서 인간 구제를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하셨다. 한울집을 지키는 용의 새끼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내려 보내기로 하였다.

송라면 조사리에는 정덕(稔德)이라는 아주 신앙심이 두터운 부인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해와 달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데, 그 광명을 거뒀 품에 안는 꿈을 꾸곤 후 임신이 하게 되었다.

그 날부터 부인은 마음을 정결히 하고, 매사에 조심하면서 태어날 아이에 대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달이 차서 옥동자를 순산하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원각조사 마흔(摩訶)이다.

느닷없이 새끼를 잃은 용 부부는 아들을 찾아 천지를 헤맨 끝에 마흔이 자기네 아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몰래 찾아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암용을 앞세우고, 솟음이 뒤따르며 마흔의 집 근처까지 와서 육지에 올라가려고 했으나, 큰 바위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바위를 뚫기로 했다. 그러나 바위가 워낙 단단하였으므로 쉽사리 뚫어지지 않았다.

용 부부는 마음이 자꾸 조급하여졌다. 한울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날이 새기 전에 어떻게 하더라도 아들을 찾아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엄한 벌을 받기 때문이었다. 뒤늦게 용 부부가 새끼를 데리러 간 것을 안 하느님께서 몹시 언짢아 하셨다.

이런 하느님의 마음과 마흔을 보낸 이유를 아는 거북 마흔급히 하계하여 정덕 부인

에게 아이를 안고 신구산(神龜山)으로 피신하라고 일러주었다. 용 부부는 천신만고 끝에 바위를 뚫고 마을을 데리러 갔으나 이미 정덕 부인이 몸을 피한 뒤였다. 낙심한 용부부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바다로 돌아오니 이미 동녘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용 부부는 그만 바위로 변해버렸다.

숫용암과 암용암은 오늘날까지 조사리 바닷가에서 파도를 맞고 있다. 그리고 용 부부가 뚫었다는 용치바위에는 파뿔가 치는 날이면 그 굴속에서 “내 새끼야” 하고 울부짖는 암용의 애달픈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뒷날 원각조사는 이 사실을 알고 용치바위에 와서 용들의 넋을 위로해 주고 ‘복거(卜居)’라는 큰 글씨를 새겨주었다고 한다.

● 고지동 구총암

기계면 고지리 앞 들에 있었던 9개의 바위를 구총암(九塚岩)이라 부른다.

옛날 이 마을에 고주보(高周寶)라는 역사(力士)가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꼬치장사라 불렀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천하의 역사를 모집하자 고주보장사도 부역꾼으로 불리어 가게 되었다. 진시황은 부역 오는 역사들에게 백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바위 9개씩을 지참하도록 명을 내렸다. 고주보장사도 기계면 부근에서 바위 9개를 구하여 막 출발하려는데 성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출역을 포기한 고주보가 바위를 그대로 둔 것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한다. 원래는 9개의 바위가 있었는데 두 개는 일제강점기에 하천공사에 사용되었고, 농토 확장으로 매몰되어 버리고, 현재는 두 개만 남아 있는데 모두 고인돌이라고 한다.

● 공진거랑과 등대산

기계면 지가(芝柯)1리 아랫마을과 지가2리 넘마을 사이에는 조그마한 거랑(川)이 있는데 이 거랑을 공진거랑이라 하고, 그 왼쪽의 나지막한 야산을 등대산이라 한다.

조선 중기, 공진사라는 선비가 벼슬에 뜻이 없어 한양에서 이곳으로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경주부윤이 기계에 들렀다가 함께 공부하던 공진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공진사에게는 착하고 예쁜 무남독녀가 있었는데 이를 본 경주부윤이 사돈 맺기를 청하자 공진사는 쾌히 승낙을 하였다. 혼례를 불과 며칠 앞두고 경주부윤이 역모죄 누명을 쓰고 한양으로 압송되어 버렸다. 공진사 부부는 거랑을 건너 등대산에 올라가서 경주부윤의 억울함을 천지신명에게 매일 기도하였다. 그 공덕으로 경주부윤은 풀려날 수 있었다. 그 후부터 경주부윤의 억울한 죄를 밝히기 위하여 공진사 부부가 매일 건너다닌 개울을 공진거랑, 등불을 밝혔던 산을 등대산으로 불렀다고 한다.

● 꿈에서 얻은 땅

기계면 내단은 고개를 넘는다는 뜻이 있다. 약 300여 년 전 최국일, 박충국 두 선비가 이곳을 지나다가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하였다. 먼 길을 걸어온 뒤라서 두 사람은 곧 잠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두 사람은 똑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 두 사람은 붉은 언덕을 넘어 좋은 집터를 얻게 되고, 그 땅 위에 집을 짓고는 잘 살게 된다는 꿈이었다. 서로 꿈이 같았다는 걸 알게 두 사람은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 독마(獨馬)

기계면 지가2리 월리 마을 입구에는 개울이 있고 큰 소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 곳을 예부터 독마라고 불려왔다. 이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으로 예쁜 딸을 둔 안노인이 주막을 열고 있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자신이 이 집을 자주 찾던 방물장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는 병으로 누운 아버지의 외상값을 갚으러 왔다고 말했다. 그 때 마침 딸이 방에서 나오다가 그 청년과 눈이 마주쳤는데 청년의 늙름한 기상과 용모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주막집 처녀는 그 청년을 잊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 딸을 의지하며 살아오던 그 어미도 기막힌 죽음의 원인 앞에서 미쳐 날뛰다가 화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그 후 그 청년은 이런 사연을 모른 채 주막을 찾아왔다가 이웃사람들에게 그간의 사연을 전해 듣고는 크게 가슴 아파하였다. 그는 두 모녀를 위로하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가서 잔을 올리며 자신도 술을 마시다가 그만 취하여 잠들고 말았다. 꿈속이었을까. 청년은 그를 찾아온 처녀와 만나서 밤새도록 노닐었다고 한다.

이튿날 아침, 그 무덤 근방에서 말이 크게 울부짖기에 달려가 보니 그 청년이 무덤에 엎드려 죽어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승에서 못 이룬 애절한 사랑을 저승에서 이루길 빌면서 물어 주었다고 한다. 그 후 사람들은 말이 홀로 슬피 울었다고 하여 지금까지 독마라 부르고 있다.

● 수곡(水谷)의 유래

기북면 수곡리는 한들 동쪽 산기슭에 있다. 옛날에는 물이 무척 구하여 해마다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일이었다. 그해에도 가뭄이 심하여 기우제를 올리는데 어떤 사람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수맥을 일어 주었다고 한다.

“너희들의 정성이 가뭄하여 물을 점지해주겠노라, 운주산 물줄기를 끌어와야 하니 내가 가리키는 곳에다 우물을 파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을사람들은 꿈에서 가르쳐준 곳에다 우물을 팠다. 과연 그 우물에서는 물이 펄펄

솟아나기 시작하였으며, 가뭄을 잇을 수가 있었다. 그 후 이 마을을 물이 평평 솟아나는 곳이라 하여 수곡으로 불려졌다.

● 파석암(破石岩)

기계면 용산동에 욕심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 있었다. 손님 접대하기를 귀찮아하고 있는데 마침 한 스님이 찾아 왔다.

“스님! 시주를 듬뿍 하겠사오니 매일같이 오는 손님을 오지 않도록 해주시오.”

라고 부탁하였다.

스님은 부자집 주인의 부탁을 쾌히 승낙했다.

“용산을 사산(蛇山)으로, 용산동을 사산동(蛇山洞)으로 개칭하고, 마을 앞의 바위를 파괴해 보세요.”

주인은 스님이 일러준 대로 용산을 사산으로, 용산동을 사산동으로 이름을 바꾸고, 마을 앞 바위를 깨뜨리니 그 속에서 흰 비둘기 세 마리가 날아갔다.

그러한 일이 있던 후 마을은 퇴락하고 부자집은 망하여 그렇게 많이 찾아오던 손님들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깨뜨린 바위를 파석암(破石岩)이라 하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다.

● 호장골

기북면 대곡2리 뒷산에는 호장골이란 골짜기가 있다.

약 500여 년 전에 손씨 성을 가진 장군이 해질 무렵 부하들과 함께 이곳을 지나게 되었다. 골짜기 한곳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범이 나타나 장군 일행을 가로막았다. 손 장군은 부하들을 피하게 하고 범과 싸움을 벌였다. 서로 안고 뒹굴며 내지르는 소리가 산을 진동시켰다. 새벽이 되어서야 조용해졌다. 가슴을 조이던 부하들이 조심스레 찾아가 보니 장군도 범도 다 죽어 있었다. 부하들은 손 장군을 후히 장사 지내주었다.

그런 일이 있던 후, 이 골짜기를 범과 장군이 싸운 곳이라 하여 호장(虎將)골 이라고 불렀다

● 대나무 숲속의 부자집 터

죽장면 입암리 죽장중·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자리가 옛날에는 큰 대숲이었다고 한다. 산촌답지 않게 앞이 훤히 트이고, 주위 산천이 수려한 곳이나 동남으로 큰 하천이 가로 놓여있어서 큰 마을을 형성하지 못하고 두 셋 집만 살고 있었다.

어느 해 한 지사(地師)가 입암리의 한 집에 머물면서 대숲 한 곳에 명당자리를 일러 주었다. 그리고는 부를 이루거든 오래 머물지 말고 곧 이사를 하라고 당부하였다. 지

사의 말대로 그 곳에 집을 짓고 살다보니 과연 해를 거듭할수록 재물이 모여들었다.

부자가 되었지만 욕심이 더 생긴 사람은 이 터를 버리고 이사할 수가 없었다. 지사가 한 말을 애써 잊으며 계속해서 살다가 어느 해 어른이 세상을 뜨게 되었다.

그 날부터 연 3일간 비가 쏟아지더니 그만 하천이 범람하여 백일간 물에 잠기어 빠지질 않았다. 살림은 물론이고 논밭이 다 떠내려가고 말았다.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이사했을 때는 옛날 가난 그대로였다고 한다.

● 용전(龍田)의 유래

마을 뒤 구릉지를 용두들이라 한다. 이 곳에 거대한 용이 누워 있다가 승천하면서 곡강 하구의 산맥을 꼬리로 쳐서 물이 빠져 나갔다 하는데, 이에 연유하여 용전이라 한다.

● 사정리 가척보

옛날 사정리 가척마을 주씨(朱氏) 문중에 주성욱(朱成郁)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물이 귀하므로 사재를 털어 가척에서 사미마을까지 연결되는 보를 만들어서 가뭄을 막아 주었다. 그런데 마을 지형이 뱀의 형국이라 보의 축조가 뱀의 허리 부분을 자르는 결과가 되어 보 축조 후 주씨는 모두 망하여 마을을 떠났다 한다.

● 안덕리 새바우

안덕리 못산(池山)마을 뒷산에 새바우라는 바위가 있다. 옛날 비학산에 있던 용마가 고주산에 있는 장수를 찾아 날아가다가 지산 뒤의 말바위를 밟고 다름 바위를 밟다가 그만 말발굽이 바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용마는 허가 빠져 죽었는데, 이에 연유하여 새바우(*‘새’는 ‘혀’의 사투리)라 하였다 한다.

● 이가리 장수바위

마을 북동쪽 바닷가에 장수 투구에 돌출한 장식 모양의 바위가 있어 장수바위라 불렀다. 일제침략기에 이모씨가 헐어서 동사(洞舍)를 짓는 데 써 버렸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씨 문중에 우환이 잦고 장본인 역시 좋지 않은 일이 자주 일어났다. 이에 50여년 전 콘크리트로 탑을 쌓듯 다시 복원을 해 두었다.

● 하광동 덕수산

약 5백 년 전 지씨와 용씨 부인이 하광동(광천1리)에 정착하여 살았다. 지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특출한 기력을 가진 아기였다. 괴력을 가진 아이는 역적이 된다는 풍

설이 있어 하는 수 없이 죽여 버렸다 한다. 아기가 죽는 순간 앞산에서 용마가 뛰쳐 나와 들판에서 덕수질(근두박질)을 하면서 앞산을 할퀴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에 연유하여 이 산을 덕수산이라 한다. 마을 어귀 노송림 속 마을제당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에 지씨와 용씨의 위패를 모시고 동제를 지내고 있다.

● 지경리 장군혈

지경리 마두산(馬頭山) 능선을 따라 난 두발골로 치오르다가 산마루 중간쯤에 장군혈(將軍穴)이라는 명당이 있다. 옛날 박모씨가 조상 묘를 쓴 후 자식을 얻었는데, 괴력을 지닌 아이였다. 하루는 울음을 기치지 않고 애를 먹는지라 어머니가 아기를 둔 채 물을 길러 먼 곳에 있는 우물을 다녀왔다. 집안이 고요한 가운데 이상한 소리가 나기에 이상하게 여겨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아이가 선반 위에 올라가는 등 범상치 않은 행동을 보였다. 마을사람들에게 알리니 이는 필시 대장군이 태어난 것인데, 그냥 둘 경우 어미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기의 부모는 하는 수 없이 아기를 끌러 죽였다. 아기가 죽는 순간 용마가 나타나 슬피 울부짖으며 서낭당 골짜기로 가서 죽었다.

제2절 민담

1. 이상한 모자

옛날 어느 두메산골에 이씨 성을 가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살림살이가 곤궁하여서 산에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팔아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니 어떤 묘 위에 여우가 한 마리 앉아 있었다. 여우 앞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는 “휘여!” 하고 큰 소리를 질러 여우를 쫓아 버렸다. 할아버지가 여우가 있던 자리에 가 보니 무슨 모자 같은 것이 한 개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신기하게 생각되어 그 모자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할머니께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것 참 괴이한 일이다.”

하면서 할아버지는 그 모자를 한번 머리에 써 보았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모자를 쓰자마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온데간데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음성은 들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그 모자를 벗으니 할아버지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그 형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한참 무언가 생각하더니

“웁다, 좋은 수가 생겼다.”

하며 집을 나갔다. 할아버지는 마을의 어느 제사 지내는 집에 가서 그 모자를 쓰고 방에 들어가니 그 집에서는 마침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가지고 간 자루에 제물을 이것저것 가득히 넣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제물을 내어 놓으며 할머니에게 먹으라고 했다. 할머니는 어안이 병병하여 어찌된 일이냐고 할아버지에게 물으니 할아버지는 제삿집에 가서 가져온 사실을 할머니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의 옳지 못한 행동에 큰 걱정을 했다. 할머니는 고민하다 결국 그 모자를 부엌에다 놓고 불을 질러 태워 버렸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그 모자를 찾으니 그 모자는 제 자리에 있지 않았다. 놀란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모자가 왜 사라졌냐고 다그치니 할머니는 그 일을 사실대로 모두 할아버지에게 털어 놓았다. 할아버지는 노발대발하여 큰 야단을 쳤으니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한참 동안 생각하던 할아버지는 또 한 수가 생겼다면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모자가

타버린 재를 보더니 온 몸에 바르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모습은 또 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잘 되었다면서 아랫마을 이씨네 제사에 갔다. 할머니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곳에 당도하여 제사 지내는 방에 앉아 제물을 하나씩 돌씩 주워 먹으니, 사람들이 잔을 올리다가 제물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일제히 놀라서 소리치는데 한 사람이 자세히 본즉 그 할아버지의 손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손끝의 재가 닦여 버린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하는 동안 한 간담 큰 제관이 물걸레를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마침 물걸레를 가져오니 그 제관이 할아버지의 손끝을 잡고 차례 차례 닦으니 온몸이 눈앞에 나타났다.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바른 말을 하라고 매를 치니 할아버지는 그 모자의 이야기를 모두 해 주었다.

그 모자를 긴요하게 사용하면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애석하게 되었다며 모두들 안타까워했다. 그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고 뒷날에도 그 모자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지고 있다.

2. 명태의 유래

아주 먼 옛날 함경도 명천 땅에 태 서방이라는 한 어부가 살고 있었다.

태 서방은 가난한 살림이라 그날 그날 고기를 낚아 팔아서 겨우 끼니를 이어갔다. 어느 날 태서방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명천 앞바다로 고기잡이를 하러 갔다. 웬일인지 요즘은 고기가 잘 잡히질 않아서 살림이 더욱 곤궁한지라 태 서방은 그날만큼은 제발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리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첫 그물을 들어 올렸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지 못한 고기들이 많이 걸려 나왔다.

‘야 이게 무슨 고기일까?’

하고 궁금해 하면서 태서방은 다시 그물을 바다에 던졌다. 두 번째 그물을 들어 올리니 이번에도 역시 조금 전과 같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고기가 많이 들어 있었다.

태서방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물었다.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는가?” 하고 물으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더불어 늙어가는 처지이지만 이번 고기는 처음인데 도대체 무슨 고기인지 알 수가 없구료.”

하고 태서방이 우쭐대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태서방, 그럴 것 없이 고을 사또께 가서 무슨 고기인지 물어보구려. 하자

태서방은 맞장구를 치며 고기를 들고 고을 사또를 찾아갔다.

“사또님께 아뢰오.”

“무슨 일이냐?”

“소인이 이런 고기를 낚았는데 무슨 고기인지 알 수가 없어 사또님께 여쭙어 보려고 왔습니다.”

하고는 태서방이 고기를 들어 보였다. 태서방이 들어 보이는 고기는 사또도 처음 보는 고기라

“허허, 나도 고기의 이름을 잘 모르겠네.”

하며 고개를 가로 저으면서 얼마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내가 그 고기의 이름을 지어 주겠다. 그 고기는 명천 바다에서 잡았으니까 ‘명’ 자하고 어부의 성이 태씨니까 ‘태’ 자를 따서 ‘명태’라고 부르도록 하게.”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태서방은 사또가 지어 준 이름의 고기를 들고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그 고기의 이름이 ‘명태’임을 알렸다. 명태라는 물고기는 그 이름이 알려지자마자 잘 팔렸다. 그래서 태서방의 가난한 살림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고, 명태는 이러한 사연으로 이름이 생기게 되어 오늘날까지 불리어지고 있다.

3. 거짓 ‘업’ 이야기

어느 고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마음씨가 착하지만 겨우 논 서마지기밖에 없는 가난뱅이였고, 동생은 욕심 많은 부자였다. 그러다 동생은 형편이 어려운 형을 도울 줄을 몰랐다.

어느 날 가난뱅이 형은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 식구가 늘게 되자 양식이 턱없이 모자랐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그 다음 해부터 서마지기 논에다 모두 찰벼를 심었다. 그래서 가을에는 찰쌀을 거두게 되었다. 찰쌀로 밥을 지어 먹으니 한꺼번에 밥을 많이 먹을 수 없게 되어 겨우 끼니를 이어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늘 배고픔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결국 이 며느리는 다른 꾀를 생각해 냈다.

작은집에 가서 시삼촌에게 내년엔 갓을 테니 쌀 다섯 가마니만 빌려 달라고 했다. 이에 시삼촌은 내년엔 꼭 갓갓다면 빌려줄 수 있다면서 쌀을 가마니에 담기 시작했다. 다섯 가마니째 쌀을 담았을 때 이 며느리는 그 가마니를 자기 치마로 덮어 씌웠다. 시삼촌이 왜 그러냐고 묻자 며느리는 이 가마니에 업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자 시삼촌은 업이 든 쌀가마니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며느리는 이미 빌려 준 쌀 가마니를 다시 가져간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했다. 시삼촌은 하는 수 없이 쌀 백 가마니를 대가로 주고 업을 되돌려 받았다. 쌀 백 가마니를 잃을망정 자기집 살림을 보호해 주는 업을 넘겨 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며느리의 지혜로 재산을 얻게 된 형도 이리하여 넉넉한 살림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4. 도둑의 개심(改心)

예로부터 도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가난하다고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부자라고 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도둑 귀신이 붙으면 도둑이 되고 마는 것이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돈 많고 양식도 풍부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으나 이 사람에게 도둑 귀신이 붙어 도둑질하는 버릇이 생겼다. 어느 날 저녁도 도둑질하고 싶은 욕심을 참을 수 없어 집을 나갔다. 한 집에 이르러 집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는데, 그 집 안주인이 해산을 했는데 하도 먹을 것이 없어 흠이불 풀해 놓은 것이라도 술에 삶아 달라는 애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렇게 형편이 어려워면서도 도둑질을 안 하는데 자신은 부자로 살면서도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주인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다. 그래서 일단 판 집에 가서 쌀 한 가마니를 훔쳐 해산한 집의 마루에 몰래 갔다 두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5. 김씨와 이씨

앞집에는 김씨, 뒷집에는 이씨가 살았는데 공교롭게도 그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났다. 그들이 커서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또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 어른들은 아들에게

“너희들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으니 서로 돕고 친하게 지내라.”

하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김씨 집안은 못 살고, 이씨 집안은 잘 살게 되었다. 김씨는 매일 이씨 집에 와서 점심을 얻어먹고 놀면서 하는 말이

“너와 나는 한날 한시에 났는데 왜 너는 잘 살고 나는 못 사느냐?”

고 하면서 그다지 좋지 않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니 이씨는 불쾌하였다.

그래서 이씨는 피를 한 가지 생각하였다. 이씨는 김씨를 보고

“사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잘 살게 되었다네. 아들은 소를 거꾸로 매어 소죽을 먹고, 아내는 요강을 이고 며느리는 솔뚜껍을 이고 마당에서 춤을 추었다네. 이것을 저 건너 마을 점쟁이가 알려 주더구만. 자네도 그렇게 해보게나.”

“그것은 어렵지 않지.”

김씨는 아주 장담을 하고 이씨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갔다. 먼저 아들을 불렀다

“얘야, 소를 거꾸로 매어 소죽을 먹여라. 그러면 잘 살게 되느니라.”

아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아버님, 누가 그 따위 소리를 합디까?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듣지 마세요.”
아들은 지계를 메고 밭으로 가버렸다. 김씨는 실망을 하고 할멈과 며느리를 불렀다.
“할멈은 요강을 이고 며늘아기는 솔뚜껑을 이고 마당에서 춤을 추오. 그러면 우리는 잘 살게 될 것이다.”

이에 할멈은

“그 귀신 든 소리 하지 마시오.”

하며 밖으로 나가고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버렸다.

김씨는 창피하여 어쩔 모르고 있었다. 이씨는

“이봐, 잘 살고 못 살고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협력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지. 자식은 자식대로, 할멈은 할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그렇게 의견이 달라 갈라지면 그 집안은 곧 망하게 되는 법이오. 식구들의 손발이 맞지 않아 못 사는 것을 한탄하지 마오.”

하였다고 한다.

6. 복 타러 가는 길

옛날,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난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몹시 가난했고 글 읽기를 좋아했지만 아들을 하나 남기고는 부인에게 물려줄 재산도 하나 없이 죽었다. 부인이 남의집살이를 해서 겨우 끼니를 이을 정도여서 매일같이 죽만 먹고 살았다. 그래서 그 아들은 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라나게 되었다.

어느 날 아들은 냇가에서 어떤 영감을 보았다. 영감은 허연 밥이라는 것을 먹고 있었다. 아들은 하도 신기하여 영감에게 그것이 무엇이나고 물어 보니 밥이라고 했다.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 보니 맛이 좋았다.

“어르신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 보았다.

“하늘이 옥황상제님께 복을 타면 되지.”

하고 영감이 대답했다. 아들은

“어르신, 어떻게 하면 복을 탈 수 있습니까?”

“북두칠성 별만 보고 가면 되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순간 머리가 허연 영감은 사라져 버렸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내일 복 타러 가겠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얘야, 복을 어떻게 타니?”

하고 물었다.

“하늘의 옥황상제님께 가면 복을 탄대요.”

하고 아들이 대답했다. 아들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다.

“그런데 네가 가려면 옷이 있냐, 짚신이 있냐, 어떻게 가려 하니?”

하며 걱정을 하다가 어머니는 그날 밤 아들이 입었던 옷을 빨아서 방에 말려 다음 날 입혀 주었다. 그런데 여비가 없었다.

그 때 마침 월자쟁이가 지나가면서 머리를 팔라는 소리를 하였다. 어머니는 월자쟁이를 불러서 머리를 잘라 팔아 아들의 여비를 마련해 주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인사를 하고 북두칠성이 떠 있는 방향을 향해 떠났다. 몇날 며칠을 가다 보니 돈이 다 떨어졌다.

마침 그곳에 대궐 같은 큰 집이 하나 있었다. 주인을 부르니 한 예쁜 처녀가 나왔다. 처녀는 이 총각을 큰 방으로 안내했다. 처녀는 저녁상을 잘 차려서 들고 왔다.

“도련님은 어디에 가십니까?”

“옥황상제님께 복을 타러 갑니다.”

“그럼, 부탁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어떤 부탁인데요?”

“사실 제가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하인들과 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차서 시집을 가려고 당사자에게 말하면 그 당사자가 하루도 못 넘기고 죽어버리니 무슨 연유가 있는지 옥황상제님께 그 까닭을 좀 여쭙어 보셔요.”

부탁을 받고, 그 이튿날 또 길을 떠났는데, 어떤 외딴집에 이르니 해가 저물었다. 그 집에서 묵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집에선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까닭을 물었다. 그 집 주인이 말하기를

“우리 아들이 5대 외동인데, 몸져 누워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으니 어찌 웃으며 지낼 수 있겠는가?”

“그것 참 슬픈 일이군요.”

“그런데 젊은이는 어디에 가는가?”

“예, 저는 옥황상제님께 복 타러 갑니다.”

“그러면 아들이 어떤 약을 써야 나올지 좀 물어보게.”

“예, 그러지요.”

총각은 그 집에서 잘 얻어먹고 또 약간의 여비까지 받고 떠났다. 가는 도중 큰 뱀이 길을 가로 막고 있었다. 이 총각은 그 뱀을 용이라 불렀다.

“용님, 저는 하늘의 옥황상제님께 복을 타러 가는데, 왜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까?”

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용이 되어 하늘에 올라갔는데, 나만 이렇게 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너를 하늘에 올려 줄 터이니 옥황상제님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 보아라.”

그는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뱀의 도움으로 무지개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하늘에 올라가니 강아지 한 마리가 옥황상제에게로 안내해 주었다. 옥황상제 앞에서 총각은 복 타러 왔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옥황상제는 줄 복이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총각은 크게 실망했으나, 옥황상제는 오면서 부탁받은 것이 있을 터이니 사실대로 말해 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총각은 부탁받은 세 가지를 차례대로 아뢰었다.

옛날 도둑놈이 그 집의 대문 밖에 금을 한 단지 묻고, 대문 안에 은을 한 단지 묻어 놓았기 때문에 그 나쁜 기운이 외동아들에게 미쳐 그러니 그 금과 은을 파면 관참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그 처녀는 보통 사람과는 혼인하지 못하고 다만 여의주와 금은을 가진 남자가 배필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뱀은 욕심이 많은데, 다른 놈들은 여의주를 하나만 가졌지만 그 놈은 둘을 가졌기 때문에 승천을 못한다고 했다.

복도 타지 못하고 무지개를 타고 내려오니 뱀이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총각은 옥황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 뱀은 입에 물고 있던 여의주를 한 개 던져 주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총각은 뱀이 버리고 간 여의주를 몸에 넣고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외동아들 집으로 갔다.

그 집에 가서 옥황상제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털어 놓으니 주인이 대문 안과 밖을 파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과연 대문 안에서는 은이 나왔고, 대문 밖에서는 금이 나왔다. 그것을 다 파내니 5대 외동아들은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다 나왔다.

그 집에서 주는 금과 은을 얻어 가지고 다시 혼자 사는 처녀 집으로 가서 옥황상제가 말한 대로 알려 주니 처녀는 크게 실망을 하였다. 금은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여의주를 가진 사람은 없는 법인데, 여의주를 가진 사람이라야 배필이 될 수 있다니 평생 혼인하지 말고 혼자 살라는 운명인가 보다고 생각하며 달밤에 홀로 뜰을 거닐면서 쓸쓸한 노래를 읊조렸다. 이 처녀는 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문득 총각이 자고 있는 방을 쳐다보니 방문에 서기가 서려 있었다. 그래서 문구멍을 통해 그 총각을 살펴보니 몸에서 서기가 빛나고 있었다. 이 처녀는 옥황상제가 이 총각과 혼인하라는 복을 줬다고 생각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방안의 총각은 문을 잠그며 예로부터 남녀유별인데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처녀는 총각이 혹시 밤에 도망이라도 갈까봐 문 앞에서 밤을 꼬박 새웠다. 날이 샌 다음 총각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처녀가 술을 한 잔 따르며

“옥황상제님이 아마 당신과 내가 혼인하라고 한 것이 틀림없을 성싶으니 혹시 당신

이 가진 물건을 한번 내 놓아 보시오.”

하고 말했다. 총각이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꺼내 보니 과연 금과 은, 여의주가 있었다.

두 사람은 드디어 혼인하기로 하고 흠어머니가 제시는 집으로 돌아와 혼인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았다고 한다.

7. 고목 속의 보물

옛날 한 부부가 흠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한 효자, 효부였지만 워낙 살림이 궁핍해서 하루는 양식을 사러 갔다가 커다란 고목 밑에 쉬다고 앉았는데, 잠이 깜박 들었다. 그 밑의 큰 구멍으로 들어가니 거기엔 많은 보물이 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와 집에 가서 부모님 봉양을 잘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니 남으로부터 인사 받고 잘 살게 되었다.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잘 살게 된 이유를 묻자 그 연유를 얘기했다. 그 소릴 들은 한 사람도 고목 밑에 가서 자는 체하고 있으니 도깨비가 들락날락해서 이 사람도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구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게 웬 일인가. 보물을 훔쳐 갔다고 잡아 치니 호되게 매만 맞고 돌아왔다 한다.

8. 개와 고양이

어느 부부가 너무나 가난하여 품팔이를 하며 살았는데, 하루는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기에 밥이랑 먹을 것을 쥐서 키웠다. 어느 날 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강아지도 역시 잘 키웠다.

그래서 이 집에는 큰 개와 큰 고양이가 한 식구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은혜를 보답하려고 강 건너에 있는 부잣집 금고속의 보물을 훔치기로 했다. 개는 고양이를 등에 업고 헤엄쳐 강을 건너갔다. 부잣집 대문에 이르러, 개는 울밑에 숨어 있고 고양이는 집에 들어가니 주인이 쥐를 잡으려고 온 것으로 믿고 밥을 주었다. 그리고는 쥐를 잡으라며 금고 옆에 두었다. 이 고양이가 피가 많아 쥐를 잡는 체하다가 금고 문을 열고 많은 보물을 훔쳐서 밖으로 나왔다.

고양이를 개가 업고 개가 보물을 입에 문 다음 다시 강을 헤엄쳐 건너기 시작했다. 그런데 고양이는 자꾸 개가 보물을 물고 있는지 궁금하여 자주 물어 보았다. 세 번이나 물어 보았다. 그런데 그만 네 번째 물음에 답하려다 개는 보물을 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떨어뜨리고 난 후 강을 건너 나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파도가 휩 치면서 큰

고기 한 마리가 뛰어나왔다. 개와 고양이가 그 고기를 물고 집으로 갔다. 부부가 기뻐하면서 구워 먹으려고 배를 갈랐는데, 그 속에서 잃었던 보물이 나왔다. 그래서 그것으로 논과 밭과 집을 사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한다.

9. 정승댁 며느리

옛날 한 정승이 살고 있었다 그 정승은 높은 벼슬에 남부럽지 않은 살림을 살고 있으나 그의 부인은 아들 하나만 낳고 죽어버렸다. 그리하여 정승은 후처를 두어 그 슬하에 여러 자식들을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첫째 부인의 아들이 나이가 차서 장가들게 되었다. 아들이 장가 드는 집 또한 부유하고 벼슬도 높은 명문 집안이었다.

드디어 장가 드는 날이 되어 새 신랑은 관복을 입고 가마를 타고 신부집에 가서 그 날의 모든 행사를 마치고 신방에 들게 되었다. 온 종일 시달린 두 사람은 금세 잠이 들었는데, 새 신부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깨어 보니 옆에 누워 자던 새 신랑의 머리가 없고 시체만이 있었다. 신부는 정신을 잃었고, 정승은 사랑방에서 자다가 이 사실을 알고는 곧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집안은 온통 발각 뒤집혔고, 모두들 신부의 짓이라고 했다. 정신을 차린 신부는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집을 떠났다. 방물 장사로 나서서 몇 년이란 세월을 팔도강산을 누비며 범인을 찾아 다녔다. 온갖 고생 끝에 하루는 어느 고을에서 두 노인 내외만 살고 있는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인연이 닿았던지 노인 내외를 양부모로 모시게 되었다.

방물장사로 이 집 양딸 노릇을 하게 된 신부는 언제나 결혼 첫날 사건의 누명을 벗겨 달라고 하느님께 빌며 하루하루를 울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하루는 신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외마디 소리가 들려 깨니 양부모의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어쩐 일인지 그 싸우는 사연이 바로 자신의 첫날밤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그 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을 먹으며 년지시 양부모에게 자기가 방물 장수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라며 이야기를 했다.

“어느 정승댁 아들이 장가든 첫날밤에 처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는데, 신부가 그 누명을 쓰게 되었다 합니다. 다니다 보니 별일도 다 있지요.”

하고 그 노인 내외를 충동질했다.

며칠 후 밤에 또 다시 두 노인의 싸우는 소리가 들려 가만히 엿들으니 첫날밤의 사건은 바로 이 두 노인이 저질렀음을 알게 해 주었다. 신부는 두 노인이 있는 방에 가서 은장도를 빼어 들며 바로 말해 달라고 위협했다. 어쩔 수 없이 두 노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느 정승댁의 하인으로 있을 때 그 댁의 첫째 부인이 아들 하나를 두고

세상을 떠나자 다시 후처를 두어 아들과 딸을 여럿을 낳아 잘 지내고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첫째 부인의 아들이 장가 가던 첫날밤에, 아들의 목을 베어오면 종 문서를 불태워 주고 평생 먹고 지낼 만한 재산도 주겠다고 하는 후처의 말에 말려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은 정승댁 항아리 속에 넣어 창고 밑에 넣어 두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들은 신부는 두 노인과 이별한 후 시댁으로 곧장 갔다. 신부가 시댁으로 가던 중에 어떤 점잖은 노인을 만나 어느 곳에 정승댁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니 그 점잖은 노인이 그 댁은 왜 찾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그 댁의 며느리라고 말했다. 바로 그 노인이 정승이었던 것이다. 그 노인은 봄철이라 아들과 첫 부인의 묘소에 가서 옛 일을 되새기며 눈물을 흘리고 오던 길이었다. 신부는 엎드려 절을 하며 이야기 했다. 자신의 누명을 벗겨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모든 사실을 털어 놓았다.

며느리와 시어른이 집으로 돌아와 종을 시켜 모든 창고를 여니, 며느리가 말한 곳에서 과연 항아리가 나왔고. 그 곳에는 보기에다 처참한 아들의 목이 나왔다. 며느리는 신랑의 목을 껴안고 울다가 돌아가 자살을 하였다. 또 정승은 종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는 종 문서를 불태우고 가서 잘 살라고 말하며 종들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후처와 그 아이들은 모두 기둥에다 묶고 집에 불을 질렀다.

그 정승은 집을 나와 모진 목숨 죽지는 못하고 그 길로 도를 닦겠다는 각오로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다고 한다.

10. 은혜 깊은 두꺼비

옛날 처녀 혼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어느 해 여름에, 이 처녀가 밥을 해서 푸고 있으면 커다란 두꺼비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우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처녀는 밥을 해서 아버지 밥을 먼저 드리고, 자기 밥에서 한 숟갈씩 떠서 그 두꺼비에게 먹여 3년을 키웠다.

그런데 이 동네에는 해마다 선달 그믐날에 제당에 사람을 한 명 사서 넣는 풍습이 있었다. 그 해 선달에는 사 넣을 사람이 없었다. 그날 사람을 한 명 제당에 사 넣어야만 그 동네 청년들이 무사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이 많이 죽는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처녀가 아버지 몰래 자기가 팔려 가겠다고 나섰다. 돈만 많이 준다면 가겠다고 했다.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는 누가 모시고 네가 가느냐면서 말리니 돈만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잘 잡숫고 잘 입고 사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 팔려 간다는 것을 아버지한테 알리지 말고 자기가 가는 날 말씀드리라고 했다.

드디어 시간이 흘러 선달 그믐날이 되었다. 그 동네 부잣집에서 그 처녀에게 저녁

을 잘 차려서 일찍 먹이고 가마에 태워 동네를 한 바퀴 빙 돌았다. 그 날 밤에 가면 죽는 목숨이라고 그 동네에서 사을 꾸집하게 차려서 먹였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처녀는 자기 집에 와서 저녁을 지어서 아버지께 마지막 상을 바쳤다. 아버지가 저녁을 다 먹은 후 떠날 시각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아버지께 건네주며

“아버님, 이 돈으로 평생을 잘 잡수시고, 잘 입으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저는 오늘 저녁에 가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아버지는 돈을 방바닥에 내던지며

“너 죽고 나서 돈 있으면 뭐하냐?”

라고 하면서 방바닥을 두드리며 통곡을 했다. 그러자 딸은

“그렇지만 아버지,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아버지고 딸을 붙들고서

“네가 가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애야.”

하면서 또 한번 크게 통곡을 했다.

“아버님 올지 마세요. 이 돈으로 평생을 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딸은 방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장통에 넣고 횡 하니 밖으로 나가고 말았다. 딸을 보낸 아버지는 밤새 문을 붙잡고 딸이 죽는다고 생각에 울고 또 울었다. 딸은 제당에 갔다. 곱게 옷을 차려 입고 제당 한 구석에다 초를 네개 켜다. 방안이 온통 환했다. 새벽이 가까워져 어디선지 “우르르릉” 하는 소리가 나기에 이 처녀가 천장을 쳐다보니 커다란 지네가 거꾸로 붙어 있었다. 그 지네가 들어오느라고 소리가 그렇게 요란했던 것이다. 너무나 겁이 나서 제당의 방문을 열어 놓고 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때였다. 자기가 먹여 키웠던 두꺼비가 방 복판에 들어와서는 지네를 향해 힘을 쓰면서 연기를 몸에서 뿜어내고 있었다. 두꺼비가 그렇게 연기를 뿜어내니 지네는 한참을 견디다가 결국은 벼락 치는 듯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서 죽었다. 두꺼비 또한 몇 시간을 독을 뿜어내느라 힘이 다 빠졌는지 죽고 말았다. 다음 날 정월 초하루, 동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당에 초상 치러 왔다. 그러나 제당문을 여는 순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처녀가 눈을 깜빡거리고 살아 있으니 모두가 놀라 물러섰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바닥에는 커다란 지네와 두꺼비가 죽어 있어서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놀랐다.

그 후 지네는 동네 청년들이 처치하고 두꺼비는 이 처녀가 명주로 곱게 싸서 장사를 잘 지내 주었다. 밥을 주어 키워 주었다고 그 은혜를 갚은 고마운 그 두꺼비를 그냥 버릴 수 없다면서 따뜻한 양지에 눈이 미리 녹은 곳에 묻어 주었다.

참고문헌

- 박일천, 《일월향지》, 1966.
청하중학교, <향토구비설화> 《관송》참간호, 1986.
영일군사편찬위원회, 《영일군사》, 1990.
포항시, 《포항의 역사와 전통》, 1990.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북마을지》, 1990.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1999.
포항시, 《아름다운 포항 유서깊은 마을》, 2007.
박창원, 《내연산 산령전마을 백계당 연구》, 동대해문화연구12, 동대해문화연구소, 2008.